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9. 3. 21(목), 14:00 ~ 17: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봉렬, 김지민, 서태홍, 이정수, 이찬희,
이호열, 임영애, 전봉희, 천득염, 홍성걸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2	2019년도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충청북도)	공개
3	여수 진남관 주변 도로개설	공개
4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축사 양성화	공개
5	서울 승례문 주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사업(재심의)	공개
6	서울 흥인지문 주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7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 기적비 건립	공개
8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 마을안길 정비 공사	공개
9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2차)	공개
10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변경허가)	공개
11	남해 용문사 대응전 주변 화장실 신축	공개
12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농가주택 신축	공개
13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길상암 건립	공개
14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방문자 편의시설 설치	공개
15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	공개

【검토사항】

16	영암 영보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7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8	담양 객사리 석당간, 남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계획 검토	공개
19	중요 건축문화재 단청의 과학적 조사 및 분석 검토	공개
20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옹벽 설치
- 여수 진남관 주변 군자동 소로 3-29호 도시계획 도로개설
- 고성 건봉사 능파교 주변 대웅전 지역 발(시)굴조사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하수관로 매설
-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옆 부속창고 신축공사
-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 석축 설치
- 안동 봉정사 대웅전 주변 산림경관 정비 및 산불 방화선 구축
-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허가)
-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주변 임야 주벌(개벌)
- 천안 천홍사지 오층석탑 주변 산책로 조성
-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488-1)
-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488-2)
- 서울 살곶이 다리 신교량 보수
-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
-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정자 증축(2개동)
-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주변 의병장 고평순 순절비 보수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신축
-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변경허가)
-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도로선형 개량공사

21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03-001

1.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충남 보령시 소재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남 보령시 소재 「성주사지동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9.01.1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9.01.25. ~ '19.02.25) 동안 별도 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청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성주사지동삼층석탑」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번지
 - 지정일 : 1973. 12. 24.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保寧 聖住寺址 東 三層石塔)
 - 소유자(관리자) : 국유(보령시)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번지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 지정면적 : 6.8㎡(보령 성주사지 내)
 - 수량 : 1기
 - 구조/형식 : 석탑

라. 현지조사의견(2018.02.27 / 문화재위원 ○○○, 전)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1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02.27	대상문화재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조사자	성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건축학부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신라 9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사지는 충남 보령시 성주면에 위치한 사찰터로 금당터를 비롯하여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와 모두 4기의 석탑이 현존하고 있다. 이들 중 5층 석탑은 금당지 전면에 건립되어 있는데 반해 금당지 후면에는 3기의 3층석탑이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건립되어 있어 특이한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상기 석탑은 가람의 건립연대, 석탑의 양식에 나타난 우수성과 건립시기 등으로 보아 보물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1>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 명 칭 :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保寧 聖住寺址 東 三層石塔)
- 소 유 자 : 국유
- 소 재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번지 성주사지 경내
- 수 량 : 3층석탑 1기
- 규 격 : 4.1m 가량
- 재 질 : 화강암
- 형 식 : 2층 기단과 3층 탑신을 갖춘 신라양식 계승형 삼층석탑
- 조성연대 : 9세기 말로 추정
- 현 상

1. 입지

성주사터에는 현재 4기의 석탑이 있는데 성주사지 동삼층석탑은 그 중 하나이다. 두렷하게 확인되는 금당 터의 앞에는 5층석탑이 1기 자리하고 있으며, 금당 터 뒤에도 나란히 3기의 석탑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동쪽에 있는 것으로,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이다.

신라 9산 선문의 하나로 충남 보령시 성주면에 입지한 성주사지에는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를 비롯해 모두 4기의 석탑이 있다. 이들 중 5층 석탑은 금당지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가람배치형식에 따라 건립된 석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당지 후면에는 3기의 3층석탑이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건립되어 있어 특이한 가람배치형식을 하고 있다.

3기의 석탑은 각각 동3층석탑, 중앙3층석탑, 서3층석탑으로 명명되어 있고, 이들 중 중앙3층석탑(보물 제20호), 서3층석탑(보물 제47호)은 보물로 이미 지정되어 석탑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국가 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동3층석탑만은 현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다.

2. 성주사지 동3층석탑의 현황

성주사지의 금당지 뒷면에 건립되어 있는 3기의 석탑 중 동쪽에 자리한 동삼층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개층의 탑신을 올린 높이 4.1m의 신라후기석탑형식 3층석탑이다.

이 석탑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 이 석탑의 건립연대를 흔히 9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성주사가 개창된 시기인 847년과 탑의 형식에서 비롯된다.

- 이 탑의 특징으로는 탱주가 하나인 이중기단으로 지대석과 저석 등을 4개 정도의 석재를 잘 조립하여 건립하였으며 완만한 경사를 지닌 갑석에 얇은 부연을 나타내고 있다. 갑석의 상부면에는 낙수면의 경사가 표현되었고, 양면이 만나는 합각선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 기단 갑석의 맨 윗돌과 탑신의 1층 몸돌사이에는 角弧角形 3단 받침위에 다시 별도의 괴임돌을 별석으로 끼워 탑신을 받치고 있는데 이는 약간 후기적인 모습이다.

라. 탑신은 단일석으로 우주가 각출되었고 면석에는 자물쇠를 둔 門扉形式을 모각하여 표현하였다. 탑신의 前面에는 층단형을 이루는 2중의 외곽 틀인 額을 조각한 후, 그 안에는 문고리와 자물쇠를 표현하고 있다.

- 옥개석은 각층이 4단의 층급받침을 두었고 다소 얇은 옥개석은 모서리에서 날렵한 반전을 두고 있다. 이 또한 후기적인 것이며 백제계석탑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다. 고려 초기의 백제계 석탑들은 옥개석이 두께가 얇고 넓어 낙수면의 구배가 완만하지만 이 석탑은 돌출이 작고 처마부분이 두꺼워져 신라 석탑 양식에 훨씬 가깝다.

- 그러나 처마에서 느껴지는 반곡의 수법에서 백제계 석탑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이는 보원사지석탑이나 발산리석탑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다.

이들은 백제의 고토에 건립된 탑들로 백제시대 탑의 조영에 익숙해 있던 장인들의 감각적 의식 속에 백제양식탑이 계승되어 무의식중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 전체적인 조형감각은 균형잡힌 비례와 체감이 어울려 우수한 조형성을 갖춘 작품이라 하겠다. 또한 석재의 가공이 우수하고 조립기법도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양식적인 특징을 종합해 보면 이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후기인 9세기 말경에 건립된 석탑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석탑과 함께 주변에 있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삼층석탑과 중앙삼층석탑의 양식을 비교해 보아도 유사함이 많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 석탑에서 나타난 양식적인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 그 동안 동삼층석탑을 지방문화재로 두고 왔는지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

- 기단의 유사성 ; 지대석과 저석으로 이루어진 2중기단과 우주, 탕주의 모습이 뚜렷함.
- 기단 갑석 : 완만하게 경사진 기단 갑석의 상면에는 각 모서리의 합각선이 뚜렷함. 갑석의 부연이 얇음.
- 탑신 괴임 : 1층탑신 괴임으로 角弧角形 3단 받침 상면에 別石의 괴임대 마련
- 라. 門扉形 裝飾 : 1층탑신의 면석에 모각된 문비형이 있고 그 안에는 자물쇠와 문고리가 장식됨.
- 옥개석 轉角部의 反轉 : 옥개석은 전각에 이르러 날렵하면서도 경쾌한 반전을 이룸.
- 높이 : 약 4.1미터 내외임.

<붙임2>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성주사 사적기에 의하면 성주사는 847년에 낭혜화상이 개창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이 석탑도 건립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석탑뿐만 아니라 같은 사지에 있는 4기의 석탑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사적기에 釋迦如來舍利塔·定光如來舍利塔·迦葉如來舍利塔·藥師如來舍利塔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3기의 석탑은 定光·迦葉·藥師의 三尊 如來가 석탑으로 명명된 것으로 해석되었다.¹⁾

특히 가람배치형식은 一塔一金堂 형식으로 金堂址 정면에 오층석탑이 자리하여 중문 · 석탑 · 금당이 자오선상의 일직선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국시대 가람배치형식을 따르고 있어 寺址의 오래된 풍모를 짐작하게 한다. 다만 일반적인 가람배치형식에 부가적으로 금당의 배면에 또 다른 석탑이 3기 자리하고 있어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1) 李銀昌, 『保寧聖住寺址石塔考』, 『史學研究』21, 金聲均博士華甲紀念論文集, 韓國史學會, 1969, p.45

성주사지 동3층석탑은 전형적인 신라시대 후기 석탑으로 전체적인 조형감각은 균형잡힌 비례와 체감이 어울려 우수한 조형성을 갖춘 작품이라 하겠다. 또한 석재의 가공이 우수하고 조립기법도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금당의 배면에 양식적으로 유사한 석탑 3기를 모신 예가 한국의 사찰에서 전무한 상황으로 보아 참으로 특수한 사례라 하겠다. 특히 석탑의 명칭에 불상의 존명이 사용된 것은 더욱 특이한 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수한 점과 보물인 2기의 주변 석탑에 비하여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되어 성주사지 동3층석탑은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02.27	대상문화재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조사자	성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사학과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상기 석탑은 현상을 보아 보물로 승격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6 월 12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1>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 명 칭 :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 소 유 자 : 국유
- 소 재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번지 성주사지 경내
- 수 량 : 3층석탑 1기
- 규 격 : 높이 4.11m
- 재 질 : 화강암
- 형 식 : 2층탑신을 구비한 일반형 삼층석탑
- 조성연대 : 9세기에 건립된 삼층석탑으로 추정
- 현 상

1. 입지

신라 9산 선문의 하나로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에 위치한 성주사지에는 낭혜 화상 백월보광탑비를 비롯해 모두 4기의 석탑이 현존하고 있다. 이들 중 5층 석탑은 금당지 전면에 건립되어 있어 전통적인 가람배치에 의해 건립된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금당지 후면에는 3기의 3층석탑이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건립되어 있어 가람배치와는 무관한 석탑임을 알 수 있다.

3기의 석탑은 각각 동삼층석탑, 중앙삼층석탑, 서삼층석탑으로 명명되어 있고, 이들 중 중앙삼층석탑(보물 제20호), 서삼층석탑(보물 제47호)은 보물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동삼층석탑만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다.

2. 동 삼층석탑의 현상

동삼층석탑은 2층 기단위에 3층탑신을 올린 높이 4.1m 규모의 일반형 삼층석탑이다. 이 석탑은 성주사지의 금당지 뒷면에 건립되어 있는 3기의 석탑 중 동쪽에 자리한 석탑이다.

이 석탑이 지닌 양식적인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하 2층기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각 면에는 양우주와 탕주 1주가 정연히 모각되어 있다.
2. 갑석의 상면에는 낙수면의 경사가 구현되어 있고, 합각선이 분명하다.
3. 초층탑신 받침으로는 각호각형 3단 받침위에 다시 굽형괴임대 형식의 별석받침을 놓았다.
4. 초층탑신에는 문비형을 모각했다. 탑신의 전면에는 층단형을 이루는 2중의 액을 조식한 후, 내면에는 문고리와 자물쇠를 표현하고 있다.
5. 옥개석의 하면에는 매층 각형 4단의 옥개받침이 조출되었다. 낙수면의 경사는 비교적 완만한 편으로 전각에 이르러 날렵한 반전이 구현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양식적인 특징을 보면 이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후기인 9세기에 건립된 석탑임이 분명하다. 더불어 기왕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삼층석탑과 중앙삼층석탑의 양식이

- 첫째, 상·하층기단에는 양 우주와 탕주 1주가 정연히 모각되어 있고,
 - 둘째, 상·하층 기단 갑석의 상면에는 각 모서리의 합각선이 뚜렷하며, 경사진 낙수면을 구현하고 있으며,
 - 셋째, 초층탑신 받침으로 각호각형 3단 받침 상면에 굽형괴임대 형식의 별석받침이 놓였으며,
 - 넷째, 초층탑신에 모각된 문비형에는 각각 자물쇠와 문고리가 모각되어 있고,
 - 다섯째, 옥개석은 전각에 이르러 날렵하면서도 경쾌한 반전을 이루고 있다.
- 이상과 같이 양 석탑이 지니 양식을 보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삼층석탑 및 중앙삼층석탑과 동삼층석탑은 비록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양식을 지닌 석탑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기의 석탑에서 동일한 양식이 검출됨은 이들 석탑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2>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성주사는 낭혜화상 無染이 847년에 개창했음은 이미 성주사 사적기를 통해 알려진 바 있어, 이 시기를 석탑의 건립 하한으로 상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²⁾ 뿐만

2) 崇岩山聖住寺事蹟記에 의하며『...唐宣宗大中元年丁卯冬十月十日 至鳥舍寺 其夜雪下半腰, 假住數日 僧裕寂梵行志崇三人先居之 固請住止 文聖大王亦遣宰相魏昕 請居因住錫居...』라고 기록되어 있어 聖住寺의 前身이 百濟의 鳥舍寺였으며 大中元年

아니라 사지에 있는 4기의 석탑에 대해서 사적기에는 釋迦如來舍利塔·定光如來舍利塔·迦葉如來舍利塔·藥師如來舍利塔으로 기록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5층석탑은 金堂址 정면에 건립되어 중문·석탑·금당이 일직선상에 놓인 것으로 삼국시대 堂塔伽藍配置의 고제를 답습한 伽藍配置上의 석탑으로 그것이 釋迦如來舍利塔이라고 聖住寺事蹟記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불탑이라는데서 상례적인 가람으로서의 탑과임을 알 수 있으며 3기의 석탑은 定光如來·迦葉如來·藥師如來의 三尊像이 多層方塔形의 석탑으로 배치된 이양특례를 보이고 있다⁴⁾라는 견해가 발표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석탑의 양식적인 면면과 기왕의 연구성과를 모두 종합해 보면

금당지 뒤편에 건립되어 있는 3기의 석탑은

첫째, 가람배치와는 무관하게 건립된 석탑으로,

둘째, 성주사가 개창되는 847년을 건립하한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셋째, 각부의 양식을 볼 때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양식을 지니고 있고,

넷째, 사적기에 기록된 定光如來舍利塔·迦葉如來舍利塔·藥師如來舍利塔으로 건립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석탑의 명칭에 불상의 존명이 사용된 것을 보면 신라하대에 이르러도 석탑은 불상과 동등한 가치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불상을 대신하여 존명을 지닌 탑으로 대치 건립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성주사지 동삼층석탑은 서삼층석탑이나 중앙삼층석탑에 비해 양식적으로나 건립의 배경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초층탑신이 파손되어 있는 중앙삼층석탑에 비해 보존상태는 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주사지 동삼층석탑은 현재의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시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847)에 朗慧和尚無染이 이곳에 와 住錫함으로써 聖住寺가 開創된 것으로 보인다.

2) 考古美術同人會篇, 『崇岩山聖住寺事蹟』, 『考古美術』 9-9, 1968.

3) 李銀昌, 『保寧聖住寺址石塔考』, 『史學研究』 21, 金聲均博士華甲紀念論文集, 韓國史學會, 1969, p.45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02.27	대상문화재	보령 성주사지동삼층석탑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미술사 (석조미술)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보령 성주사지는 성주산을 배후로 하여 앞으로 성주천이 흐르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넓은 대지를 조성하여 가람을 조영하였다. 성주사지는 관련 기록과 그동안 여러 번의 발굴 조사 결과 백제시대 창건된 오합사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선시대까지 꾸준하게 법등을 잇다가 조선후기에 들어와 퇴락하면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성주사지에는 신라말기 조성된 여러 석조물들이 유존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사찰과 달리 비교적 많은 총 4기의 석탑이 전해지고 있다. 이 중에서 1기는 금당 앞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3기는 금당 뒤편에 좌우로 나란히 건립되어 있다. 모두 9세기 중엽경인 신라 말기에 건립된 석탑으로 당시 성주사의 위상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p>
주요 지정 사항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붙임 1> 참고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p>현재 성주사지에 유존되어 있는 4기의 석탑들은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동시기 신라말기에 성행한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치석수법과 양식이 정연하여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석탑들은 『崇巖山聖住寺事蹟』에 따르면, 각각 釋迦如來舍利塔, 定光如來舍利塔, 迦葉如來舍利塔, 藥師如來舍利塔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록과 현존하는 유물과의 상관관계를 살필 수 있는 사례가 드문 자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성주사지 금당 앞에 배치된 1기의 오층석탑과 금당 뒤편에 좌우로 나란히 건립되어 있는 3기의 석탑은 하나의 세트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오층석탑, 중앙 삼층석탑, 서 삼층석탑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동 삼층석탑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p>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현재 금당 뒤편에 건립된 3기의 삼층석탑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한 상태이다. 그런데 금당 앞에 석등과 함께 건립되어 있는 오층석탑은 탑신부의 하중으로 기단부 부재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바깥쪽으로 밀려난 상태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붕괴 또는 추가적인 파손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의견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은 건립 시기와 양식, 보존 상태, 관련 기록 등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같은 사지에 건립되어 있는 다른 석탑들과의 형평성과 관리 등을 감안할 때에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7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1>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 명 칭 :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 소 유 자 : 국유
- 소 재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번지
- 수 량 : 1基
- 규 격 : 높이 4.11m
- 재 질 : 화강암
- 조성연대 : 통일신라
- 현 상 :

1. 보령 聖住寺의 연혁과 聖住寺址 전래 4基 석탑의 지정 내력

보령 聖住寺址는 사적 제307호로 그동안의 조사와 연구 결과 백제시대 창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寺名은 烏舍寺로 추정되고 있다. 성주사의 창건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崇巖山聖住寺事蹟』에 비교적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다.⁵⁾

성주사지는 그동안의 발굴 조사에서 백제와 통일신라시대 기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기와도 상당량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까지 꾸준하게 법등을 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부분적인 중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크게 퇴락하면서 점차 사찰로서의 기능을 잃어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시는 중창되지 못하고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도 사지에는 변창기의 모습을 엿 볼 수 있는 朗慧和尚 無染(800~888.11.17)의 탑비와 함께 부도골에서 이전된 파손된 부도재가 전해지고 있다. 탑비는 崔致遠이 찬한 四山碑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 건립된 聖住寺碑의 귀부와 이수 등이 국립 부여박물관에 옮겨져 소장되어 있다. 또한 사지에는 통일신라시대 건립된 오층석탑과 석등이 금당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드물게 3기의 삼층석탑이 금당 뒤쪽에 좌우로 나란히 건립되어 있다. 이외에도 성주사지에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4기의 석탑은 모두 신라말기 성주사가 변창했을 당시에 약간의 시기적인 격차는 있었지만 거의 동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5) 黃壽永, 「崇巖山 聖住寺 事蹟」, 『考古美術』 통권 98호, 考古美術同人會, 1968.

있다. 이들 석탑들은 낭혜화상의 탑비와 함께 일제강점기인 1917년경부터 일괄 조사 보고되어 등록 관리되었으며, 1937년에 이르러 낭혜화상 탑비가 보물 제30호, 오층석탑이 보물 제31호, 중앙삼층석탑이 보물 제32호, 서삼층석탑이 보물 제62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동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 삼층석탑만 누락된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분명한 사실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전한다.

이후 1961년 문화재관리국이 신설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낭혜화상 탑비는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8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3년 1월 21일 오층석탑은 보물 제19호로, 중앙 삼층석탑은 보물 제20호로, 서 삼층석탑은 보물 제47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성주사지에 있는 다른 석탑과 같은 시기에 건립된 중요한 석탑임에도 불구하고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지정문화재에서 계속적으로 누락 또는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참 후인 1973년 12월 24일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은 시도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까지 성주사지의 금당 뒤편에 건립된 3기의 석탑은 건립 시기와 양식, 보존 상태 등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다른 다소 기형적인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





2. 가치와 의견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은 성주사지 금당 뒤편의 중앙과 서쪽에 있는 삼층석탑과 마찬가지로 2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올린 전형적인 신라 석탑 양식으로 건립되었으며, 9세기 중반경에 건립되어 신라말기를 대표하는 석탑이라 할 수 있다. 동 삼층석탑의 기단부는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부재의 치석 수법 등이 중앙이나 서쪽 삼층석탑 못지않게 짜임새 있고 정연하다. 또한 동 삼층석탑의 탑신부도 1층 탑신 하부에 별석이 삽입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탑신과 옥개석의 치석 수법과 양식이 당대의 우수한 장인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은 중앙이나 서쪽의 삼층석탑 못지않은 우수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함유하고 있으며, 구조와 기법 등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괴임이나 받침의 세부적인 치석 수법과 장식적인 기교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은 시공 과정이나 서로 다른 장인에 의한 치석 공정상에서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성주사지 금당 뒤편에 건립된 동서와 중앙에 건립된 3기의 석탑은 9세기 중반경에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채용하여 거의 동시기에 이름은 전하지 않지만 동일 장인 집단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p>성주사지 서 삼층석탑 상대갑석과 1층 탑신부</p>	<p>성주사지 중앙 삼층석탑 상대갑석과 1층 탑신부</p>	<p>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상대갑석과 1층 탑신부</p>

그리고 성주사지 금당 뒤쪽에 배치된 3기의 석탑은 원위치로 추정되는데, 보령 성주사지처럼 통일신라시대 사찰 가람에서 좌우로 나란히 3기의 석탑이 건립된 사례로는 김천 道川寺址를 들 수 있기는 하지만 사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김천 도천사지는 폐사되어 현재 석탑들이 김천 직지사로 이견되어 있다. 이처럼 사례가 드문 것으로 보아 신라말기 성주사에 건립된 3기의 석탑은 독특한 불교 사상에 의하여 가람이 조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주사지에는 총 4기의 석탑이 유존되어 있는데, 이들 탑과에 대하여 『崇巖山聖住寺事蹟』에 따르면, 성주사에는 釋迦如來舍利塔, 定光如來舍利塔, 迦葉如來舍利塔, 藥師如來舍利塔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당시 부처와 탑과를 동일한 尊格으로 인식했음도 알 수 있다. 현재 성주사지 가람 상에서 석탑들의 배치와 양식 등을 고려할 때 금당 정면에 건립된 현존하는 5층석탑이 釋迦如來舍利塔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당 후면에 나란히 배치된 3기의 석탑이 각각 定光如來舍利塔, 迦葉如來舍利塔, 藥師如來舍利塔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성주사지 석탑들 중에서 오층석탑, 중앙 삼층석탑, 서 삼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이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의 역사적, 학술적, 미술사적, 불교 사상적 가치 등 여러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2019년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충청북도)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등 9건의 금석문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등 9건의 문화재에 대한 탁본 허가 신청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 ※ 본 사업은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주관하고 있음.
- (2) 대상문화재 :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등 9건(붙임참조)
- (3) 신청내용 : <금석문 탁본>
 -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등 금석문 9건에 대한 탁본 허가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금석문 탁본 조사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문화재청 민간경상보조사업 / 비지정 포함 총 95건)
 - 사업내용 : 선정된 대상유물 현장조사, 탁본, 장황·보고서 제작 등.
 - 채탁 : 습식탁본

- 재료 : 한지, 먹, 먹방망이, 옷솔
- 과정 : 사전조사 및 세척 → 종이 붙이기 → 먹물 올리기 → 종이 떼어내기
→ 채탁 후 뒷정리
- 조사단 : 16명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 구성 인원 및 업무 내용					
총괄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	총괄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	관리	
실무	불교중앙박물관 팀장		○○○	실무관리	
	불교중앙박물관 중무관		○○○	담당	
금석문 탁본 조사 구성 인원 및 업무 내용					
진행	총괄	책임연구원		○○○	탁본 진행 총괄
	조사	연구원		5인	현장 조사 및 관계기관 교류, 탁본 정리 및 탁본 섭외, 현장 조사 및 탁본 보조, 보고서 작성
	채탁	A팀	연구원	2인	탁본 및 탁본 현장 사진촬영
		B팀	연구원	2인	
		C팀	연구원	2인	

○ 2019년도 사업대상 현황

문화재명	기존 탁본 유무	탁본 사유	국립문화재연구소 정기조사 결과 (비신 중심으로 발췌)
1.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	시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며, 청주 지역 호족과 관련된 문장이 희귀하여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선본(善本)의 탁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015년 조사(당간지주 모서리 등에 부분적인 마모 및 탈락이 있으나 오래전부터 발생된 것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음)

문화재명	기존 탁본 유무	탁본 사유	국립문화재연구소 정기조사 결과 (비신 중심으로 발췌)
2. 단양 신라 적성비	○	현재 비의 탁본을 대학박물관과 개인이 소장하기 있기에 국가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탁본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탁본은 채탁 상태가 우수하지 않아 원문 번역 및 판독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질적으로 우수한 탁본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0년 조사(배면 일부분과 탈락멸실된 부위의 박리, 박락이 보임)
3. 충주 고구려비	○	기존의 탁본은 채탁 상태가 우수하지 않아 원문 번역 및 판독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질적으로 우수한 탁본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0년 조사(석비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나 보호각기단 상부의 회다짐이 탈락되어 관람객의 부상의 위험이 있음)
4. 충주 역정사지 대지국사탑비	○	기존의 탁본은 먹이 균일하지 못하여, 일부 글자를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질적으로 우수한 탁본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조사(석비 보존상태는 양호. 비신 하부와 상부에 지의류 오염으로 인한 변색이 보여 세척작업이 필요함)
5.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	기존 탁본은 채탁 상태가 우수하지 않은 까닭에 원문 번역 및 판독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질적으로 우수한 탁본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조사(비신에서 박리와 박리에 의한 균열이 보이고 있어 경화처리가 필요함)
6.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명문의 훼손 위험이 있기때문에 선본(善本)의 탁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명문의 탁본을 대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기에 국가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탁본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조사(탑 표면의 박리, 지의류와 곰팡이의 번식 및 고착화로 생물피해 우려가 심각함)

문화재명	기존 탁본 유무	탁본 사유	국립문화재연구소 정기조사 결과 (비신 중심으로 발췌)
7.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탑비	X	기존에 탁본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비신의 아랫부분이 결실되는 등 훼손이 심하기에 탁본의 확보가 시급하다.	2016년 조사(비신의 멸실, 표면 마모 등이 심하며, 이로 인해 비문이 심하게 훼손됨)
8.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	기존의 탁본은 채탁 상대가 우수하지 않아 원문 번역 및 판독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질적으로 우수한 탁본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조사(비신 표면의 박락이 심하므로 박락 방지를 위한 표면 강화조치 등의 보존처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9.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X	현재 탁본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 옆에 위치하여 훼손될 여지가 있기에 탁본 확보가 시급하다.	2016년 조사(비신 표면 비문의 박리·박락으로 훼손이 심하며, 비신 4면 모서리와 전·후면 하부 모서리에 부분적인 탈락)

라. 참고사항(기존 사업추진 현황)

연도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역/소재지	기탁본여부
2018	국보 36	평창 상원사 동종 명문	강원/평창	○
	국보 63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명문	강원/철원	○
	보물 1292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명문	강원/동해	○
	보물 192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강원/강릉	○
	보물 612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강원/영월	○
	보물 78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	강원/원주	○
2017	보물 516	대구 무술명 오작비	대구/북구	○
2016	보물 517	영천 청제비, 청제중립비	경북/영천	○(청제비)
2015	국보 8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충남/보령	○

연도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역/소재지	기탁본여부
	보물 66	경주 석빙고비	경북/경주	○
	보물 1648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 능운탑비	경북/예천	○
2014	보물 68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경북/경주	○
	보물 251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경북/칠곡	○
	보물 252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경북/포항	○
	보물 316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비	경북/청도	○

- ※ (2016년) 탁본허가하였으나 지자체 담당자의 승인거절로 탁본하지 못함(국보315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보물172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 ※ ('14~'17) 경북대구지역의 탁본을 추진하였으며, 총 경북 7건, 대구 1건, 충남 1건의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을 완료하였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탁본 대상 1~7번은 시행, 8~9번은 문화재 보존처리 이후 재심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9명, 부결 1명

[붙임]

2019년도 금석문 탁본 조사(건축) 대상 목록

번호	대상유물	지정번호	유물명	연대	비신 크기	지역
1		국보 제41호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淸州 龍頭寺址 鐵幢竿]	962(광종13)	높이 12.7 지름 40	청주
2		국보 제198호	단양 신라 적성비 [丹陽 新羅 赤城碑]	545(진흥왕6) ~550(진흥왕 11)	높이 0.93 윗너비 1.07 아래너비 0.53	단양
3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忠州 高句麗碑]	장수왕대/ 문자왕대	높이 2.03 너비 0.55	충주
4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 대지국사탑비 [忠州 億政寺 大智國師塔碑]	1393(태조2)	높이 2.67 너비 1.3	충주

번호	대상유물	지정번호	유물명	연대	비신 크기	지역
5		보물 제17호	충주 정토사 법경대사탑비 [忠州 淨土寺 法鏡大師塔碑]	943(태조26)	높이 3.22 너비 1.5	충주
6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堤川 獅子頻迅寺址 四獅子 九層石塔]	1022(현종13)	높이 4.55	제천
7		보물 제534호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永同 寧國寺 圓覺國師碑]	1180(명종10)	높이 1.67 너비 0.79	영동
8		보물 제658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碑]	1394(태조3)	높이 2.65 너비 1.16	충주

번호	대상유물	지정번호	유물명	연대	비신 크기	지역
9		보물 제1295호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槐山 覺淵寺 通一大師塔碑]	958(광종9) ~960(광종11) 추정	높이 2.576 너비 1.212	괴산

3. 여수 진남관 주변 도로개설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국보 「여수 진남관」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도로 개설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1m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여수시장
- (2) 대상문화재 : 여수 진남관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군자동 472
 - 지정일 : 2001. 04. 1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동산동 427-5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95m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L=97m, B=8m)
 - 토공 : 깎기 653m³, 쌓기 176m³, 사토 466m³
 - 구조물공 : L형 옹벽 39m(최대높이 4m), 역L형 옹벽 57.7m(최대높이 2.5m)
 - 기타 : 상수·오수·우수관 매설 및 포장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계획도로 발굴 이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 재심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4.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축사 양성화

가. 제안사항

충남 천안시 소재 보물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에 동,식물관련시설을 양성화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동,식물관련시설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최고높이 8m(2층)이하, 경사지붕-최고높이 12m(2층)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리 319-8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리 221-1번지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89m
 - 사업내용 : 동,식물관련시설 양성화
 - 대지면적 : 7,041㎡
 - 최고높이 : 6.0m

구분	연면적(m ²)			용도	구조	층수
	기준	증축 (양성화)	합계			
1동	260	920	1,180	창고, 우사, 퇴비사	쇠파이프구조	1층
2동	699.75	3,008.62	3,708.37	우사, 관리자, 퇴비사, 창고	경량철골구조/ 조적조	1층
3동	-	9.80	9.80	창고	경량철골구조	1층
합계	959.75	3,938.42	4,898.17			

※ 증축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금회 양성화를 신청하는 사항임.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잘 보이는 위치이고 건물의 규모가 큼)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5. 서울 송례문 주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사업(재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 중구 소재 국보 「서울 송례문」 보호구역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통과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수도권(강남~과주) 고속 지하철인 GTX-A 신설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1.17) : 보류
 - 공법의 안정성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 필요
 - 시행과정에서의 안정성 유지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제시
 -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운용계획 제시
 - 환경영향평가 등 자료 제출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2) 대상문화재 : 서울 송례문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
- (3)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세종대로 40) 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건설사업
 - GTX-A 노선이 서울 송례문 보호구역과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지표면 아래 약 55m~60m 남서-북동 방향으로 통과하는 지하철도임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진행 중 문화재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문화재청과 협의 추진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6. 서울 흥인지문 주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흥인지문」 주변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0-2 외 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72m
 - 사업내용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231.13㎡(2,982.12㎡)
 - 층수(최고높이) : 지하3층, 지상11층(57.2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7.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 기적비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에 기적비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기적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우령길 73(하리1리)
 - 지정일 : 1971. 08. 3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132-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m
 - 사업내용 : 기적비 건립
 - 전체 대지 면적: 1,326㎡
 - 사업면적 : 48㎡(8000*6000)
 - 최대높이 : 3.39m
 - 기초공사 : 원지반 다짐 및 콘크리트 포장

- 공적비 규모(2기 건립)
 - 장대석 : 폭150*높이400, 규모6000*4000
 - 기둥 : 200*200*H500
 - 봉 : 1120*100*H100
 - 거북이좌대 : 1200*1800*H680
 - 비신 : 640*400*H1800
 - 용침 : 840*580*H630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문화재 바로 앞으로 위치 부적절)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8.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 마을안길 정비 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에 마을안길 정비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마을안길 정비 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 :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우령길 73(하리1리)
 - 지정일 : 1971. 08. 3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1리 851-6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m
 - 사업내용 : 마을안길 정비 공사
 - 포장덧씌우기
 - 1구간 : A=2,150㎡, B=3.0~8.0m, L=478m, T=5cm
 - 2구간 : A=300㎡, B=3.0~5.0m, L=64m, T=5cm
 - 자연석 쌓기
 - 기존 옹벽 블록 철거 : H=1.5m, L=18m
 - 자연석쌓기 : H=1.0m, L=18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9.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2차)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보물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2.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진입부 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837-4번지
 - 지정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76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40m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 사업면적 : 2,595m²
 - 모듈설치면적 : 808m²
 - 모듈크기 : 1.95m*0.99m, 418개

- 구조 : 태양광 패널판 + 각파이프조
- 최고높이 : 2.5m
- 지반조성 : 절·성토 없이 현 지형을 이용하는 계획
- ※ 차폐목 설치(변경사항)
 - 사철나무(1m간격) : 205주
 - 청단풍식재(3m간격) : 25주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10.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8.18)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9.22) : 부결
 - 석탑 인근 환경훼손 우려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11.17) : 조건부 가결
 - 2안(기존도로를 이용하여 교행로 확포장)으로 시행할 것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허가 심의결과(2018.02.22) : 원안가결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허가 심의결과(2018.09.20)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허가 심의결과(2018.12.20)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허가 심의결과(2019.01.17)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지형변경, 질성토량 과다, 탑 안정성 저해 등)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울주군수
- (2) 대상문화재 :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1420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03-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8m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분	최종 허가 계획안('18.2월)	'18.9월 신청(부결)	'19.1월 신청(부결)	금차
사지 인근	○ 기존도로(폭3~4m)에 교행로 4개소 확보 및 일부 구간 구거 복개·측구 설치(길이 220m, 폭 2.4m, 깊이 1.4m)	○ 문화재 북서측 사지 외곽의 도로와 같은 규모(폭 10m)로 46m 연장 ○ 교행로 확보 및 측구 설치는 좌동	○ 문화재 북서측 사지 외곽의 도로폭(10m)을 감안하여 폭 6.5~10m로 46m 연장 ○ 교행로 확보 및 측구 설치는 좌동	○ 문화재 북서측 사지 외곽의 도로폭(10m)을 줄여가며 최종 폭 6.5m로 46m 연장 ○ 기타 안전시설 설치 및 담장 보존 ○ 교행로 확보 및 측구 설치는 좌동
사지 외곽	○ 기존도로(폭3~4m)를 확장하여 폭10m 도로 개설	좌동	좌동	좌동

라.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2018.12.21.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도로 신청부지는 석탑의 배후 지역으로 중심사역의 인근지역에 해당됨
- 도로 조성으로 인하여 지형변경과 절성토가 다량 동반되므로 기존의 도로 폭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
 - 문화재 전면지역으로 노선변경을 권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1. 남해 용문사 대응전 주변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남해군 소재 보물 「남해 용문사 대응전」 주변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 보호구역 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용문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남해 용문사 대응전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68
 - 지정일 : 2014. 12. 2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6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60m)
 -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
 - 건축면적 : 40.95㎡
 - 규모 / 높이 : 정면3칸, 측면 1칸 / 5.68m
 - 형태 : 한옥형태, 우진각지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한식목구조로 신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2.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농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보물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96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5-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4m
 - 사업내용 : 농가주택 신축
 - 건축면적 : 84.96㎡
 - 층수 / 높이 : 지상 1층 / 5.58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마감 : 기와잇기, 회반죽마감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3.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길상암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국보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길상암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길상암 건립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곡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구례 연곡사 동 승탑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연곡사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08, 1008-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10m
 - 사업내용 : 길상암 건립(암자 1동)
 - 정면3칸×측면2칸(70.56㎡), 맞배지붕, 최고높이 6.42m
 - 우수처리시설 3t

라. 참고사항(설계 자문의견 2019.03.04. / ○○대학교 ○○○, ○○문화재연구원 ○○○)

- 길상암 건립 예정지는 토지면 내동리 전 1008, 답 1008-2번지에 해당함. 이곳은 현재 양봉을 하고 있으나 과거에 경작하여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과거 경작지에 형질이 어느 정도 변경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공사 시에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유구가 나오면 행정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으면 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길상암 건립 부지 전체 계획안 확인 후 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4.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방문자 편의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에 방문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방문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신륵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여주 신륵사 조사당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천송동 282 신륵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천송동 산113-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9m
 - 사업내용 : 방문자 편의시설 설치
 - 대지면적 : 86,380㎡
 - 건축면적(연면적) : 100.98㎡(100.98㎡)
 - 구조, 양식 : 한식목조(5칸×3칸, 16.5m×6.6m), 팔작/맞배지붕
 - 층수(최고높이) : 1층(6.4m)
 - 기타 : 기존 가설물인 문화재안내소, 기와불사건물 철거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규모, 양식, 위치 부적절)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5.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 화성시 소재 보물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에 편의시설 건립 및 주변 정비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편의시설 건립, 사천왕문 이전 등 정비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 소재지 : 경기 화성시 용주로 136 (송산동, 용주사)
 - 지정일 : 2017. 08.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화성시 송산동 217 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및 인접(1구역)
 - 사업내용 : 편의시설 건립 및 진입부 정비
 - 편의시설 건립 : 102.06㎡, 높이 6.075m
 - 사천왕문 해체 조립(위치이전) : 46.75㎡, 높이 7.88m
 - 매표소 신축 : 18㎡, 높이 2.6m
 - 담장정비 : 160m(H=1.2m), 22m(H=2.65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03-016

16. 영암 영보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영암군 소재 「영암 영보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영암군 소재 「영암 영보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 기념물 제104호 「영보정」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정길 10-8
 - 지정일 : 1987. 01. 1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영암 영보정(靈巖 永保亭)
 - 소유자(관리자) : 전주최씨 거창신씨 문중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정길 10-8(영보리 296)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35년)
 - 지정면적(보호구역) : 116.8㎡(3,388㎡)
 - 수량 : 1동
 - 구조/형식 : 목구조(정면5칸×측면3칸, 116.8㎡), 익공, 팔작지붕, 1고주5량가

라. 현지조사의견(2018.12.06 / 문화재위원 ○○○, 전)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1 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추가적인 가치조사와 자료의 보완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 12. 06.	대상문화재	영암 영보정(靈巖 永保亭) (전남 기념물 제104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영암 영보정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3 월 9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현황과 주변 환경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정길 10-8(영보리 296)에 위치한 영보정은, 조선초 전주 최씨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 1384-1455)가 낙향하여, 사위 거창 신씨 신후경(愼後庚, 1420-1493)과 함께 지은 정자로, 초창연대는 15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후 훼손되어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경 두 사람의 후손인 최정과 신천익에 의해 재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집이며, 개방적인 마루방과 온돌방이 있는 내부 바닥 면적이 116.8m²에 이르는, 민간이 경영한 루정 가운데서는 큰 규모에 속한다. 공포 역시 관아 건축에 어울릴 듯한 익공계 공포를 사용하였으며, 단청이 칠해져 있다.

영보정이 자리한 영보마을(내동)은 전주 최씨들이 모여 사는 씨족마을로서, 영보들의 동북변 기슭에 자리한다. 형제봉을 주산으로 그 서남쪽에 자리하여 서남쪽으로 영보들을 건너 멀리 영암의 주산인 월출산을 바라보고 있다. 영보들의 남변 월출산 아래에 자리한 영암읍과는 직선거리 7km 정도 떨어져 있다. 영보들은 영산강 본류로 이어지는 서쪽을 제외한 북, 동, 남쪽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반분지형 지형을 이루며, 이 영보들을 빙 둘러싸면서 벽계리, 우암리, 영보리, 연보리, 노송리, 대산리, 영암읍 등이 둘러싸고 있다. 이와 같은 반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생산환경이 이 지역에서 향약과 동계 등의 향촌공동체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었으며, 또한 영보정과 같은 격식 높은 고급의 루정을 공동체가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보리에는 냉천, 관곡, 내동, 서당, 은행정 등의 마을이 있고, 이 가운데 관곡동, 내동, 서당동 등은 전주 최씨가, 은행정은 거창 신씨가 그리고 냉천동은 함평 이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영보정이 자리한 내동은 안동네, 안골 등으로도 불리며, 영보리 전주 최씨 집거지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다.

영보마을에는 보물로 지정된 최덕지의 영정을 모신 영당(사당), 전주 최씨의 종가인 존양당(안채)과 존양루(사랑채), 그리고 19세기 부농 주거의 모습을 잘 간직한 최성호가옥(중요민속자료 제 164호), 그리고 의례당(儀禮堂)이라 하는 영보 대동계의 집회소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웃한 노송리에는 거창 신씨의 정사인 이우당(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7호)이 있고,, 영암 읍내에는 최덕지 등을 배향하는 녹동서원이 있다.

존양루는 1400년대 처음 지은 입향조의 거처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의 건물은 왜란 후인 1633년 다시 지은 것은 1971년 중수한 것이고, 존양당 역시 80여 년 전에 다시 지

은 것이다. 연촌 사우(연촌의 영정을 모신 영당을 사당으로 삼아 내삼문 안에 있고, 그 앞에 재실 격인 합경당과 장관각, 동서재, 외삼문 등이 있어 서원의 배치 형식을 따랐다. 영정은 조선전기의 초상화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유지초본이 남아있어 귀중하다. 중요민속자료 제164호로 지정된 최성호 가옥은 동내에서 산정이라 부르는 곳인데, 연촌의 사위와 외손이 살았던 것으로 전하며, 영보정의 바로 뒷 산기슭에 위치한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9세기말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口자형의 배치를 갖는 전형적인 남도 부농의 주거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의례당을 거점으로 시행된 영보대동계는 1550년 연촌 최덕지의 내외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룬 목족계(睦族契)를 확장하여, 1749년 덕진면 12마을의 모여 이룬 향촌 대동계의 한 사례이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살림집 형태를 띠고 있는 단층 팔작기와집이다. 동계와 동약이 병렬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고, 현재도 매년 봄 5월5일을 기해 풍향제(豐鄉祭)라는 마을 축제를 이곳에서 열고 있다. 이와 같은 장소적 중심성으로 인해, 일제 강점기인 1921년 영보학원이 영보마을에서 운영되었고, 1932년 영암지역의 사회주의계열 소작항쟁인 형제봉 만세운동이 이 영보정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도 어색하지 않다.



지형의 경사에 직각되게 서향을 하고 있는 영보정은 오른쪽으로 영보대동계와, 왼쪽으로 연촌사우와 이웃하고 있고, 앞으로는 한 단 아래에 방형의 연지를 두고 그 앞으로 도로와 주차장 등이 있다. 이 연못은 자연석으로 호안을 쌓았는데, 가로 16.8m, 세로 7.6m의 크기에 깊이는 약 2m가 된다. 현재는 물이 없는 상태이나 봄·여름에는 물고

기도 넣고 연꽃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전체 대지의 면적은 약 3,960m² 이고, 대지 안에 화장실 1개소, 비석이 5기, 용나무라 불리는 오래된 소나무가 1주, 느티나무 8주, 곰솔나무 1주, 동백나무 2주가 있다. 특히 전면에 줄지어 들어선 느티나무들은 영보정이 바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고 있으면서도, 멀리서도 이 나무들로 인해 이곳에 무언가 중요한 시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영보정과 함께 역사 경관을 이룬다.

영보정은 1987년 1월 15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04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후 1988년 안내판 설치, 1990년 지붕 변화 공사, 1991년 단청 보수 공사, 1997년 주변 연지와 석축 보수, 2006 문화재안내판 설치 및 고막이 및 기단 보수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창건과 연혁

영보정의 정확한 창건 연혁을 기록한 일차 자료는 없고, 다만 창건자로 알려진 연촌 최덕지(1384-1455)와 그의 사위 신후경의 생몰년(1420-1493)을 참고로 하여 1450년 전후의 시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문종의 재위 기간(1450-1452)라고 특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약하다. 또 일부의 자료에는 창건자로 그 외손인 산정(山亭) 신영수(愼榮壽, 1442-1497) 까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세 사람의 연대가 모두 일치하는 구간은 1442년(산정 1세)부터 1455년(산정 14세)까지가 되기 때문에, 산정의 나이를 생각할 때 어색하다.

한편, 부근에 있는 종가의 사랑채인 존양루(存養樓)에 남아있는 <존양루기>를 따르면 연촌 최덕지는 남원부사직에서 물러난 이곳에서 은거하면서 존양루를 지었다고 전하는데 그 때가 1446년이다. 이후 연촌은 1450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고 상경하였다가 1년 만에 사직하고 다시 영보촌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455년 신후경 역시 계유정란(1453년)으로 세조가 즉위하자 사직하고 고향인 영보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해는 연촌이 전주 풍남동에서 별세한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초창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즉, 하나는 연촌 최덕지가 남원부사직에서 물러나 영보로 돌아온 1446년부터 1455년 사이에 사위인 신후경과 함께 건립하였다는 기존의 통설이다. 하지만 신후경이 영보촌으로 완전히 돌아와 정착한 것은 1474년의 일이니, 이때의 공동 건립이라는 말은 최덕지가 주도하고 신후경이 관직에 있으면서 재정적(?)으로 도왔다는 말이 된다.

두 번째는, 연촌 최덕지의 사망 이후, 신후경과 그의 아들 신영수가 연촌을 기려 건립하였다는 가설이다. 이 경우 신후경이 영보로 돌아온 것이 1474년이고 1494년에 졸하였으므로, 그 사이가 건립의 연대가 된다. 즉 연촌에게는 이미 존양루라는 장수처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영보정을 지을 이유가 부족하였고, 신영수는 외조부인 연촌을 많이 따랐고, 그가 어려서 살았던 신후경의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의 최성호가옥 아래에 영보정을 건립하였으리라는 추정이다. 실제로 최성호 가옥을 주민들은 여전히 산에 있는 정자라 하여 산정(山亭)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산정이 그대로 신영수의 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조선전기 당시에 출가한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와 생활하였던 풍습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최성호 가옥터로 알려져 있는 산정이 신후경의 집터이고, 그곳에서 신영수는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외조부를 기리는 영보정을 건립하였으리라는 가설이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1450년 전후의 (최덕지 등의) 창건 이래, 20-30년이 지나 퇴락한 것을 1480년 전후에 중건하였으리라는 절충설도 가능하다.

그 어느 경우로 하던, 영보정은 새로운 왕조인 조선의 사회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적 권력이 재편되어 가던 15세기 중반 혹은 후반,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족이었던 전주 최씨와 거창 신씨가 영보지역에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두 집안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에서의 거점을 확립하기 위해 건립한 루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중수 기록은 여러 곳에 여러 기록이 혼착되어 있으나, 통설은 연촌의 7세손인⁶⁾ 기정(棄井) 최정(崔玼, 1568-1639)과 신후경의 6세손인 소은(素隱) 신천익(愼天翊, 1592-1661)이 1635년에 중수하였다는 것이다. 최정은 전주 최씨 영보 입향조인 연촌 최덕지의 선양 사업을 주도하였다. 최씨 집안에 전하는 1695년간의 ‘가장유집(家藏遺集)’을 검토한 김경옥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정은 37세가 되던 1605년 증광시에 진사 합격하고, 이후 1610년 연촌의 영정을 개장(改粧)하고, 연촌의 시문을 모은 <난후문고수록지(亂後文庫收錄誌)>를 간행하였고, 존양루의 복원을 추진하면서, 1630년에는 연촌 최덕지를 제향하는 존양사(存養祠)를 영암 읍내에 건립하였다. 이때는 영암군수와 순찰사 등 관아의 도움은 물론 외손인 거창 신씨 등 지역 사족의 도움을 받았다. 존양사는 1713년(숙종 39) 녹동서원(鹿洞書院)으로 사액을 받는데⁷⁾, 이는 영암에 유일한 일이다. 그리고 마침내 1635년 양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던 영보정을 중건하게 된다.

6) 2005년 발행된 <연촌과 영보>라는 소책자에는, 최정이 연촌 최덕지의 8세손이라 하였는데, 이는 7세손의 오류이다.

7) 녹동서원은 그 후 1665년 연촌의 손자인 산당(山堂) 최충성(崔忠成, 1458-1491), 1695년에는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 1711년에는 그의 아들인 농암(農岩)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을 추배하였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1977년 복원되었다.

이 시기 영보정과 관련된 사실로, 영보정 앞의 소나무를 보길도로부터 옮겨와 심었다는 것을 빠트릴 수 없다. 옆으로 가지를 뺀 독특한 수형을 갖는 이 소나무는, 집안에서 전하기로는 연촌의 5세손인 최길남(崔吉男, 1561-1638)이 심은 것이라 한다. 이 나무의 수령에 대해선 432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정확히 예측하는 일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4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있다.

한편, 영보정의 현판 글씨는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서예가 한석봉이 쓴 것이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을에 흥미로운 설화가 전해지는데, 석봉(石峰) 한호(韓濩, 1543-1605)은 1554년 12살의 나이로 개성에서 만난, 신후경의 증손자인 신희남(愼喜男, 1517-1591)을 따라 영암에 내려와 죽림정사에서 신희남에게서 글씨를 배웠다고 한다. 당시 한석봉의 어머니 백씨부인 역시 같이 내려와 이곳에서 30리 떨어진 월출산 서록의, 한씨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학산면 용산리에 머물면서 아천포(현재의 독천시장)에서 떡장사를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 설을 따른다면 한석봉이 영암지역에 머문 기간은 1554년부터 진사시에 합격하는 1567년까지의 기간이 될 것이고, 또 1605년에 졸하니, 1635년의 중건과는 시기가 맞지 않다. 다만, 글씨체와 신희남과의 사제관계 등은 확인이 되므로, 중건과 관계없이 예전 건물을 위해 썼거나, 사후에 집자한 것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3. 건축적 특징

영보정의 평면 구성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주망을 가지며, 후열의 가운데 3칸에 벽으로 구분된 방을 드리고, 나머지 12칸 모두를 개방적인 마루방으로 만든 단순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도리칸으로 5칸 가운데 중앙의 3칸을 9자(2.67m) 길이로 하고, 양 끝에 위치한 헐칸들은 각각 11자(3.33m)로 하여 가운데 부분보다 넓게 잡은 것이다. 측면은 3칸 모두 9자(2.67m)로 동일하게 하였다. 이것은 후열 중앙 3칸에 방을 넣은 평면계획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 바닥 면적은 정면 14.7m, 측면 8.1m로 119.07m²이 된다.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는 3칸의 방은, 마루 밑의 하부와 배면의 고막이벽을 보면 예전에는 3칸 중 1칸은 온돌이 있었고, 나머지 두 칸은 우물마루였는데 쪽마루로 변경됐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3칸의 방은 모두 상부의 반자 위에 다락방을 들였는데, 이곳은 향약과 동계문서나 집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고, 진입은 사다리를 놓고 전면에 있는 창호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내부에서도 천장판을 열고 오르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 그대로의 모습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평면 구성은 이웃한 장암마을에 위치하는 장암정과 유사한 것이다. 차이가 나

는 점은 영보정이 정면 5칸으로 가운데 3칸의 후열에 방을 둔데 반해, 장암정은 이보다 규모가 작아 정면 4칸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2칸에만 방을 두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호남지역의 대표형식 정자 형식으로 중재실형(中在室型)이 거론되는데, 이는 가운데 온돌방을 두고 그 사방을 마루가 둘러싸는 형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라 호남지역의 정자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운데 방을 둘 수 없는 소규모의 정자에서는 후열 중앙에 온돌방을 두고 전면과 양측면의 3면에만 마루방을 두는 간이 중재실형도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재실형은 사방으로 특 터져 방향성이 약한 비산비야(非山非野)의 호남 지역의 지형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하지만 동계나 향약의 거점이 되는 루정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서 3칸 구성을 기본으로 하는 중재실형보다는 너른 마루방이 가득한 단순한 개방형 평면이 호남지역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광주의 양과동정이나 나주의 쌍계정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므로 영보정과 장암정 등에서 사용된 평면 구성은 기본적으로 중재실형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지면서 동계 등을 위한 개방형의 평면을 적극 수용한 일 변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암정

영보정에서 또한 특별한 점은 마루의 높이가 일반적인 루정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이다. 기단 윗면에서 마루까지의 높이가 100cm에 이르는데, 이 정도면 한두 단의 섬돌을 두어서 마루에 오르는 일이 불가능하고 본격적인 계단이나 사다리를 두어야 오를 수 있는 높이이다. 현재도 양단의 협칸 앞에 최근 조립한 듯한 어울리지 않는 계단을 두어서 마루에 오르도록 하고 있다.

전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모두 평난간을 두른 것도 영보정이 갖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들 삼면에는 판벽과 판문이 있었던 것을, 벽선의 홈과 상부의 둔테 등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전면을 제외한 삼면이 모두 벽과 창으로 둘러싸인 형식이었는데, 그 어느 시기에 현재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상황

이 원형이었던지도 확실하지 않다. 내부의 마룻바닥에서도 후대에 부재가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부재와 옛 부재로 보이는 것이 섞여 있다.



영보정의 구조 부재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다양한 초각을 가지고 있는 화반이다. 각 주간에 한 구씩 모두 16구의 화반이 창방 위에서 장여를 받치고 있는데, 귀면(鬼面)문양, 연꽃문양, 위음문양, 민문양(사각의 판대공 형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 귀면문 화반은 정면과 좌우 측면의 중앙간에 있고, 화반문 화반은 귀면문 화반이 있는 어칸의 좌우간에 각 1구씩 총 6구가 있으며, 나머지 전면의 좌우 맨끝칸에는 연꽃문 화반이, 그리고 배면 5칸에는 민문양 화반이 놓여있다. 이는 귀면문 > 화반문 > 연꽃문 > 민문양 등으로 장식의 위계를 엄격하게 차등하였음을 보여준다.

영보정의 익공 역시 화반과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라 그 위계를 나누어 설치하였다. 그 등급 구분은 화반에서와 같이, 전면과 양 측면을 같이 하고, 후면을 한 단계 낮은 초각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2익공과 초익공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모두 제주두를 갖지 않는 2익공 공포로 보아야 한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전면과 양측면의 익공에서는 초제공과 이제공 모두 외단에 양성화 수서형의 초각을 하여 보다 화려하게 초각한 반면, 후면의 공포에서는 초제공의 외단을 둥글게 처리하고 이제공의 외단은 익공형으로 초각을 하여 초익공 공포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제주두를 사용하지 않은 점, 이익공의 외단을 마치 3익공 혹은 초익공처럼 보이게 초각한 점 등은 궁궐 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지방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귀포에서는 외단은 전면과 측면의 익공과 같이 처리하고, 내단은 점녕의 두 귀포만 초각을 하고, 후면의 두 귀포는 사절하여 간략히 처리하였다. 역시 전면과 후면을 엄격하게 구분한 결과이다.

종도리 대공은 총 4개가 있는데, 어칸 좌우의 2구는 화반대공으로, 양 협칸의 2구는 사다리꼴의 판대공으로 간략히 처리하였다. 종보를 받치고 있는 보아지는 8개가 있는데

조각이 정교하게 잘되어 있다. 정면측으로 보이는 1.2.4번의 형태는 닭머리형태의 새부리를 강조하는 조각을 하였고 내측에는 초각무늬를 하였다. 대부분의 정자는 간략한 민무늬 사절 보아지를 두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교한 조각의 문양을 넣어 정자의 격을 높였던 것이다. 대들보에도 안측으로 4개의 보아지가 있으나 문양은 중보보아지와 비슷한 형태이고 마루방의 보아지는 사절한 판보아지로 설치되었다.

단청은 익공부를 포함하여 목부재 전체에 문양 없는 석간주칠을 하였고, 연목, 부연 등 외단이 노출되는 장부재의 마구리에는 백색을 칠하였다. 기둥부분에는 페인트를 덧칠한 것으로 보인다.

4. 종합 검토 의견

영보정은 향촌사회가 재편되어가던 15세기 중반 혹은 후반에 이곳에 정착한 전주 최씨와 거창 신씨 일족에 의하여 창건되고, 임진, 정유의 왜란이 거쳐간 후인 1635년(인조 13) 중건되었으며, 이후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영암 지역의 대표적인 루정이다. 처음 재지사족의 친족간 이용을 위해 건립된 것으로 보이나, 조선 후기에는 이를 확장하여 목족계(睦族契)의 범위를 넘어 향약(鄉約)과 동계(洞契)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독특한 이력을 갖는다. 때문에 영보정 및 영보정을 건립 및 운영을 둘러싼 제반의 사정은 조선후기 호남 지역의 향촌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간적 증거가 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건축적 특성을 중심으로 보자면, 민간이 운영한 향촌의 루정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루정으로서 역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높은 마루를 가지고 있고, 후면열의 중앙에 구분된 방을 두는 독특한 평면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면과 양측면, 그리고 후면을 서로 구분하여서 창호와 난간 등의 건축적 장치, 익공과 화반, 대공 등의 건축적 장식 등에서 등급을 나누어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는 등 우리나라 루정 건축의 형식 발달사에 보탬이 되는 증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후대의 여러 기록이 없는 보수 행위로 인하여 전체적인 규모와 간살이 등을 제외하고는 그 현황 조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식이 혼탁되어 있는 점은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를 확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인근한 장암정 등을 참고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방의 구조, 외벽의 구성과 단청, 익공 등의 초각, 전면에 있는 계단 등에 대한 원형의 탐색과 복원이 필요하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 12. 06.	대상문화재	영암 영보정(靈巖 永保亭) (전남 기념물 제104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영암 영보정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정자의 지역적 특징, 건축 및 학술적 가치, 희소성 등으로 판단했을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2 월 2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영보정은 영암군 덕진면의 영보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월출산을 전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뒤에는 형제봉이 위치하고 있다. 영보마을은 전주 최씨와 거창 신씨, 남평 문씨들의 세거지로 영암의 대표적인 사족마을이다. 영보마을은 영암읍에서 동북방향으로 약 7km정도 떨어져 있으며 덕진면으로부터는 동쪽으로 5km 정도의 거리이다. 영산강변을 따라 제방을 쌓아 간척지가 생기기 전까지 영산강의 물길이 덕진까지 이어졌었다. 물길을 따라 물자와 사람이 이동하는 요충지로 경제적인 여유를 축적할 수 있었다.

영보마을은 15세기 전주를 본관으로 하는 연촌 최덕지(1384-1455년)를 입향조로 하고 있다. 영보정을 초창한 인물도 최덕지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의 위치에 중창한 것은 최덕지의 7대손인 최정에 의해 1635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중수문에 기록되어 있다. 마을의 동계가 발전하였고 향약의 중심공간으로 정자가 지어진 보기드문 사례이다.

<붙임2> 연혁·유래 및 특징

1) 창건과 변천

영보정의 정확한 초창년대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61-1866년 사이에 간행된 『대동지지』에서 영보정이 ‘영암의 동쪽 10리에 있다’는 정도이다. 따라서 고증 가능한 것으로는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확실히 현 위치에 있었다는 정도이다. 초창을 추론 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현재 정자에 걸려있는 ‘永保亭重修’ 현판이 있다. 이 현판은 1977년에 신정범이 쓴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보정은 조선 문종 때에 최덕지(崔德之, 1384-1455년)와 신후경(愼後庚)이 건립하여 양 문중에서 관리했다고 하였다. 이후 퇴락한 것을 최덕지의 7대손인 최정(崔玼, 1568-1639년)과 신후경의 6대손인 신천익(愼天翊, 1592-1661)이 현재의 위치에 중건하였다. 이후 300여 년이 지난 병진년(1976) 가을에 퇴락한 것을 다시 최낙선(崔洛璿)이 자금을 마련하여 양 문중이 함께 중건하였다. 중수문의 내용으로는 이때 기와와 보 등이 교체되는 해체수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수기를 쓴 신정범은 어떤 자료를 참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이에 따르면 현 위치의 영보정은 1635년 경에 지어졌으며 300여 년이 지난 1976년에 대대적인 해체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보정이 있는 영보마을은 전주최씨와 거창신씨, 남평문씨들이 세거하는 영암의

대표적인 사족마을이다. 영보마을은 15세기 연촌 최덕지가 내동에 입향한 이래 거창신씨와 남평문씨가 혼인으로 유입되면서 세 성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거창신씨의 입향조가 신후경이었으며 남평문씨의 입향조는 문맹화(文孟和)이다. 영보정은 혼인으로 엮힌 세 문중 중에서도 특히 최씨문중과 신씨문중에 의해 공동으로 꾸준히 중수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곳도 바로 이웃에 있는 장암정(場岩亭)과 같이 동계(洞契)의 집회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장암정은 1760년 장암 대동계에서 창건한 호남지방의 대표적인 향약 집회소로서 동계자료가 남아 있다. 17-20세기의 생활기록으로서 향촌생활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영보정은 장암정보다 한 칸 정도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평면의 구성, 가구법, 양식 등이 거의 유사하여 지역적인 특성과 동계집회소로서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14. 영보정 중수현판(1977년)



그림15.판문을 달았던 흔적

2)건축적 특징

영보정은 정면5칸, 측면3칸 규모이며 중앙 3칸은 9자, 양쪽 퇴칸은 11자 정도로 정칸보다 퇴칸이 큰 매우 보기 드문 간살형식이다. 후퇴 중앙 3칸에는 현재 장마루가 깔려있으나 원래는 온돌이었다고 전한다. 온돌전면에는 분합문이 달려있으며 온돌 상부는 고창이 있는 다락이다. 정자의 중앙칸이나 후면칸에 일부 온돌을 들이는 방식은 한국의 정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공통적 특징이다. 같은 지역의 장암정의 경우에도 정면이 4칸으로 한 칸 적기는 하지만 후퇴 중앙2칸에 따로 분합문을 달아 온돌을 들였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장암정은 현재 우물마루가 깔려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평면형식을 취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림16.영보정 전경



그림17.이웃한 장암정 전경



그림18.영보정의 평면구성



그림19.같은 평면구성을 보이는 장암정



그림20.1고주5량가의 영보정



그림21.같은 가구법을 보이는 장암정

온돌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은 모두 우물마루를 깔았다. 대청 전면은 개방되어 있으나 좌우 측면과 온돌 구간을 제외한 배면은 판문을 달았던 인방, 둔테, 장부 흔적 등이 남아 있다. 그리고 판문을 달았던 곳에는 머름이 남아 있다. 이 형식 또한 장암정과 같으며 장암정은 판문이 현존하고 있다.

초석은 자연석초석이며 기둥은 평주, 고주 모두 원기둥이며 공포는 익공형식인데 전후면에 차이가 있다. 전면은 이익공형식인데 초익공에는 제공과 익공을 동시에 새겨졌고 보머리에는 운공을 달았다. 배면은 초익공을 물익공형태로 부드럽게 처리했고 보머리에 운공을 달지 않았다. 또 정칸과 좌우 퇴칸에서도 차이

가 있다. 전면의 공포를 화려하게 만들어 정면성을 강조하려는 조형의도를 볼 수 있다.

가구는 1고주5량가로 고주는 온돌이 있는 후퇴쪽에 배열되었다. 좌우 측면에서는 고주와 동자주에 걸쳐진 층량 2개가 측면 기둥으로 연결되었으며 층량 위에는 달동자를 놓아 외기를 받도록 했다. 외기 안쪽은 1열의 우물반자를 설치했다. 동자주와 고주 상부에서는 장혀와 뜯장혀 사이에 소로를 끼운 소로수장으로 마감했다. 평주상부에서는 익공과 직교하여 장혀형 창방이 기둥머리를 연결하였고 익공과 교차하여 주심에는 교두형 행공이 장혀를 받치도록 하였다. 주간에는 식물문, 귀문, 고리문 등 다양한 모양을 고부조 한 화반이 창방과 장혀사이에 놓였다. 화반의 다양성이 초기부터 의도된 것인지 중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조각의 기법이나 모습으로 보아 처음부터 의도된 다양성으로 보인다. 이웃한 장암정의 경우에도 화반의 조각의 내용은 달라도 동물, 식물, 추상문양 등 다양한 화반을 사용했다는데 공통점을 보인다. 가구법이나 외기 및 눈썹천장의 처리기법 또한 같다. 지역적 특징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처마는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고 지붕은 팔작으로 합각부분은 목재널을 이용해 마감했으며 연목과 부연 마구리에는 하얗게 회칠을 했다. 추녀 아래에는 활주가 있으며 활주 상부에는 활주주두를 사용했다.

<붙임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영보정은 조선후기인 1635년 경에 지은 호남지방의 대표적인 정자이다. 이웃한 장암정과 함께 동계(洞契)의 회합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지금도 많은 자료가 남아 있는 향약 정자로서 보기드문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대청마루는 계단을 통해 오를 정도로 마치 누와 같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규모 또한 누와 부합한다. 간살의 구성에서는 정면5칸 중에서 중앙3칸에 비해 좌우 퇴칸이 2자 정도 큰 매우 보기드문 형식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입면에서는 전면은 개방되어 있으나 좌우 측면과 배면의 대청 부분은 머름이 있는 판문을 달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중앙의 후면 퇴칸에는 온돌을 들였었는데 이는 한국정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현재는 판문이 없어지고 1977년에 중수하면서 보와 기둥 등 일부 부재가 교체된 흔적 등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초창 때인 1635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을 동계라고 하는 민속적 자료가 풍부하고 규모, 형식, 기법, 구성 등에서 지역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그 희소성에 비추어 국가문화재로 승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12.06	대상문화재	영암 영보정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건축학부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영암 영보정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보존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03월 17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대학교, 교수

2. 문화재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3. 문화재명칭 : 영암 영보정

4.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영암 영보정(靈巖 永保亭)은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 위치한다. 국립공원 월출산으로 유명한 영암군은 영산강의 남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월출산은 영암군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상 영암군은 영산강과 월출산 사이의 넓은 평지에 자리하고 있어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영산강의 풍부한 용수와 넓은 농경지를 배경으로 영암에는 일찍부터 사족(士族)이 발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덕진면 영보리와 군서면 구림리 그리고 신북면 모산리 등은 사족들이 지배하던 대표적인 마을로 알려져 있다. 영보리는 전주 최씨(全州 崔氏)의 집성마을로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1384~1455]가 입향한 15세기 초반, 낙향하여 후학을 가르치던 곳이다. 최덕지는 전주, 완주 등에 살다가 식년 문과에 급제한 후 추천을 받아 사관이 되었다가 감찰 등 삼사(三司)의 청요직(淸要職)을 거쳐, 외관으로 김제군수, 남원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1445년 영보마을에 들어와 은거하였으며 존양루(存養樓)를 지어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이후 최덕지의 셋째 아들, 진사공 최숙(崔淑)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다. 최덕지는 『동국여지(東國輿地志)』 인물조에서 전주 최씨의 영암 입향조로 확인되는데, 호조참의(戶曹參議)와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을 역임한 아버지 최담(崔灑)과 어머니 전주 박씨(全州 朴氏)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전주와 완산 등지에서 세거하였다.

영보리에 이주 정착한 전주 최씨는 혼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를 통해 서서히 친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특히 전주 최씨가문과 연결을 맺으면서 새롭게 영암에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가문이 거창 신씨(居昌 愼氏)와 남평 문씨(南平 文氏)이다. 거창 신씨의 입향조는 신후경(愼後庚)이다. 그의 아버지인 신기(愼幾)는 최덕지와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최덕지는 신기의 막내아들이던 신후경을 사위로 삼아 영보마을에 살게 함으로써 비록 성씨는 다르지만 하나의 친족집단과 같은 결속력을 보이면서 사족집단으로서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남평 문씨도 영보마을의 사회적 일원이었다. 남평 문씨의 입향조는 문맹화(文孟和)인데, 최덕지의 사위인 김충(金攄)의 사위로, 최덕지와 처외조부 관계였다. 문맹화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반대하면서 영암에 은거하다가 장암리로 이주하였다.

5. 연혁·유래 및 특징

영보정의 창건연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600여 년 전에 입향한 최덕지와 그의 사위인 신후경이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중수연대는 1630~1635년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근래에는 1977년, 1991년 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보정이 직접 언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 영암군,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영보정(永保亭) 동쪽으로 10리에 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1986년에는 『영암군의 문화유적』 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유교문화유적 및 전통건축 전문가가 영보정에 대해 조사하여 기록하였으나, 상량문(上樑文), 중수기(重修記) 등의 건축사적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보정은 완만한 동고서저의 지형에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영보정과 그 일대를 구성하는 건축물은 영보정, 영보대동계, 영보노인정 등과 월남전주최공낙성공덕비, 소나무시술비, 전군수이이규불망비, 산정신영수유장비 등이 있고 영보정의 정면에는 연지가 배치되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이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다. 영보정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된 일자형 평면을 갖는 35.55평 규모의 대형 누정이다. 기둥은 모두 민흘림에 가까운 원형기둥으로 설치되어 있고 외진평주와 배면 가까이에 있는 내진고주 사이는 대량으로 연결되어 내부에 3분의 내진고주가 생략되어 있다. 배면의 중앙 3칸에는 벽체와 4분합문으로 구획된 마루방이 있는데 상층과 하층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층방은 정면 3칸, 측면1칸으로 내부에 장마루가 깔려 있으나 외부에서 관찰되는 고막이벽의 위치를 통해 좌측에 치우친 1칸은 원래 온돌방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층의 다락방은 향약, 동계문서 또는 중요한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던 곳으로 사다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시설이었다고 전해진다. 좌우측면과 배면에는 여닫을 수 있는 판문의 설치 흔적이 확인된다. 배면 2곳에는 홈 자국과 둔테의 흔적이 있고 우측 1곳에는 홈 자국, 좌측 3곳에는 상부 둔테, 홈 자국, 벽선 홈 자국 등이 남아 있다. 판문의 상부 둔테는 중방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하부 둔테는 난간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난간의 머름과 장선이 보수 시에 교체됨에 따라 사라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벽선과 중방의 결구에는 연귀맞춤과 맞댄이음의 두 가지 방식과 일부 면에는 쌍사 문양이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최소 2차례 이상 보수되어 현재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과거의 흔적을 통해 정면의 5칸을 제외한 좌측면 3칸, 우측면 3칸, 배면 2칸에 판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을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원형이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가구는 후면의 내진고주를 기준으로 정면 방향에는 대량이 걸려 있고 배면 방향에는 퇴량이 걸려 있어 후면에 퇴칸이 형성되는 구조이다. 가구의 규모는 1고주 5량가로 대량은 이익공의 상부와 고주에 결구되어 마루를 가로지른다. 후면에는 상부로 굽은 퇴량이 대량의 결구부 위에 나란히 결구되어 있다. 대량의 중앙에는 고주와 동일한 높이로 동자주가 설치되고 보아지, 뜯창방, 주두가 설치되며 그 위에는 종량과 종도리장여, 종도리가 결구된다. 종량의 상부에는 화반대공, 뜯장여, 종도리장여가 설치되어 있다. 화반은 주칸 별로 창방과 장여 사이에 1본씩 귀면문, 연화문, 엮음문, 민문의 4종, 16본 설치되어 있다. 대공은 중앙 3칸의 종량 위에 4본이 설치되어 있다. 영보정은 기둥의 상부에 초익공과 이익공이 수직으로 결구되고 그 상부에 대량이 설치된 전형적인 익공 양식이다. 영보정에 사용된 익공은 귀주의 상부에 설치된 귀포, 정면과 양측면의 평주 위에 설치된 이익공, 배면의 평주 위에 설치된 초익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4본의 귀포는 출목이 없는 이익공으로 제공별로 3개씩 6개의 쇠서가 결구되어 1본의 귀포를 이룬다. 이 중 정면의 2본은 창방머리가 수서와 양서의 모습으로 기둥 밖에 돌출되어 사괘에 결구되어 있다. 추녀와 수평방향으로도 수서와 양서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내부방향으로는 당초문이 초각되어 있다. 정면, 좌측면, 우측면에 있는 8본의 익공에는 초익공과 이익공이 설치되고 그 상부에 보머리가 운공으로 장식되어 있다. 1제공은 기둥의 사괘에 창방의 받을장과 살미첨차의 엮을장이 직교되고 주두가 결구되어 있으며, 상부의 2제공에는 수서형의 긴 살미첨차와 소로가 끼워진 첨차가 직교된 후 장여가 결구되어 있다. 대량의 머리는 살미첨차의 두께와 동일하게 운공이 초각되어 있는데 그 수법은 귀포와 동일하다.

배면에 있는 4본의 기둥 상부에는 정면의 익공과 양식이 다른 이익공이 설치되어 있다. 기둥의 사괘에는 내측의 가공이 없고 외측은 운공의 형태인 초익공이 결구되고 그 상부에 이익공의 수서가 첨차와 결구되어 있다. 보방향의 수서 내측에는 퇴량의 하부를 보강하는 단창방이 설치되어 있다.

6.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영암 영보정은 다락이 있는 대형 누정 건축물로, 향약과 동계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화합의 상징으로 잘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영보정

의 건립연대와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중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영보정의 연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630~1635년 사이의 건축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보정이 지닌 입면의 비례감, 목재조각의 정교함, 휘어진 목재의 수직잡기 기법 등의 조형성과 기술성은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전통적인 목재 가공과 관련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물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연혁 정리를 위한 공포의 양식 연구, 부재 단위의 심층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7.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구례군 소재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 「천은사극락보전」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방광리 70번지)
 - 지정일 : 1974. 09. 24.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求禮 泉隱寺 極樂寶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방광리 70번지)
 - 조성연대 : 1774년
 - 지정면적 : 201m²
 - 수량 : 1동
 - 구조/형식 : 목구조(정면3칸×측면3칸, 86m²), 다포, 팔작지붕, 1고주5량가

라. 현지조사의견(2017.07.11 / 문화재위원 ○○○, 전)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1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7.07.11	대상문화재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2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지정조사보고서

1. 천은사 연혁

1) 창건

천은사(泉隱寺)는 지리산의 서남쪽인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번지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로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 중의 하나로, 지리산의 높고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절 옆으로 펼쳐지고 우람한 봉우리에 의해 둘러싸고 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했으나 지금은 노고단에 이르는 도로가 절 앞까지 이어져 있고 화엄사까지 직통하는 도로가 놓여 있다.

천은사의 연혁에 관한 문헌 기록으로 1698년(숙종 24)에 月峰靈休가 찬술한 「龍城南智異山甘露寺重創事蹟序(이하 중창사적서)」와 1707년(숙종 33)에 月松이 쓴 「湖左南原府智異山甘露寺(今稱泉隱寺)事蹟」(이하 사적기)가 있다. 먼저 월봉영휴가 쓴 「중창사적서」는 천은사의 사적과 건물을 漢詩로 표현한 것이고, 월송의 「사적기」는 한문으로 서술한 것이다. 먼저 「중창사적서」에는 창건과 관련하여 말미에 “신라 헌강왕 원년(875) 烟起祖師가 처음 창건했다⁸⁾”고 적고, 서두에서 연기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즉 “당 회종 건부 연간(847~886) 도덕(道德)이었고 신라 헌강왕 이후 40년간 대경(大經)이었다, 그(연기조사)의 향기로 학도(學徒)들이 구름처럼 모여 청중이 천여 명이 되었네, 화엄 대찰을 창건하여 수행자들이 안거하도록 하였네.⁹⁾”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위 기록의 烟起祖師는 지리산 화엄사를 창건한 승려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활동 시기에 대해 6세기라는 설과 8세기라는 설이 있다. 학계에서는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烟起祖師)’를 755년(경덕왕 14) 「신라백지목서대방광불화엄경사경발문」에 등장하는 황룡사 승려 ‘연기법사’로 보고 있다. 연기조사는 750년경 활동한 승려로 추정되나 「중창사적서」에는 그보다 백여 년 뒤인 875년에 연기조사가 천은사를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시기가 부합하지 않는다.

월송이 1707년에 쓴 「사적기」의 말미에는 창건과 중창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즉 “신라 흥덕왕 3년(828) 德雲祖師가 처음 창건했다. 신라 헌강왕 원년(875) 普照國師가 두 번째 창건하다. 고려 문종 21년(1067) 道誥國師가 세 번째 창건하다. 광해군 2년(1610) 惠淨禪師가 네 번째 창건하다. 숙종 5년(1679) 祖裕禪師가 다섯 번째 창건하다. 영조 50년(1774) 惠庵禪師가 여섯 번째 창건하다.”라는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덕운 조사가 828년에 천은사를 창건한 후 18세기까지 다섯 번의 중창이 있었던 것으로

8) 唐僖宗乾符二年 新羅憲康王元年乙未 烟起祖師 始創

9) “唐僖宗乾符之際道德 羅憲康四十年間大經 馨香學徒霧集 聽衆百千餘人 欲創華嚴巨刹 爲令禪侶安”

추정된다. 9세기 초 천은사를 창건한 덕운조사는 인도에서 온 梵僧으로 중국을 거쳐 신라에 들어왔는데, 흥덕왕이 그를 흠모하여 ‘덕운국사’의 호를 내렸다고 하며, 그가 천은사를 창건한 내력은 다음과 같다.

지방 사람들이 그를 등공 덕운 화상(德雲和尚)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잔병이 있어 덕운 화상에게 치료를 구하니 샘을 가리키며 마시게 하며 말하기를 “이 샘물을 마시면 나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덕운 화상의 말대로 나왔다. 덕운 화상의 신이(神異)함을 알게 되어 “스님은 도가 지극한 사람입니다. 나무 아래 거쳐하신 곳이 부처님 집이겠지만 장차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구름처럼 모여든다면 용납할 땅이 없을 것이니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즉 덕운 화상이 지금의 천은사 자리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그의 신이함을 알고 그곳 사람들이 그가 머물고 있던 자리에 건물을 지어 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덕운 화상이 있던 곳에는 샘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천은사의 본래 명칭은 甘露寺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적기」에는 “옛날부터 늙은 덩굴이 가지를 뺀어 옥계(신선 세계)와 금전(사원) 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덕운 화상이 이를 보고 느낀 바 있어 마침내 ‘두류명산감로사’라고 편액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문헌에는 덕운 화상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의 실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상으로 볼 때 천은사의 창건주를 연기조사(烟起祖師)라고 한 「중창사적서」나 덕운 화상이라고 기록한 「사적기」의 기록 공히 신빙성이 낮다. 이들 문헌은 모두 조선 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역사적 사실보다 설화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록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다소 부족하나 불교의 지방 확산 경향 등을 고려할 때 9세기경에는 창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신라고려시대의 천은사 중창

전술한 문헌 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천은사의 전신인 감로사는 9세기경에 창건된 후 고려 시기까지 두 차례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 즉 통일신라 헌강왕대 普照國師 體澄(804~880)과 고려 문종대 도선 국사(827~898)가 중창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중창은 통일신라 때 보조국사 체징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적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있다. 당(唐) 희종 건부 2년(875, 신라 헌강왕 원년)에 보조국사 체징이 사찰을 중창하고 무리 50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거쳐하며 선풍을 드높이니, 헌강왕이 그의 덕을 흠모하여 사찰의 격을 높여 ‘東方第二禪刹’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이다.

「중창사적서」에는 헌강왕 원년(875)에 연기조사가 천은사의 전신 감로사를 창건했다고 되어있는 반면 「사적기」에는 같은 해 보조국사 체징이 중창했다며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보조국사 체징에 대해서는 장흥 보림사에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을 개창하고, 순천 정혜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보조국사 체징의 활동 지역인 장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감로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그의 비문(碑文)에는 보림사를 떠나 다른 사찰을 창건 또는 중창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의 제자들이 지리산 남부지역으로 가서 절을 창건 또는 중창하면서 스승인 보조국사 체징의 이름을 가탁(假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앞에서 감로사를 ‘동방제이선찰’이라고 명명했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¹⁰⁾.

두 번째 중창은 고려 문종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적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1067년(문종 21)에 도선 국사가 있었는데, 탑호는 연기이고 전남 영암군 사람이다. 그 뒤 일연 국사가 머물렀으며, 대중이 천여 명이었고 법이 크게 진작되어 화엄사와 동시에 병치될 정도였다고 한다.¹¹⁾“ 이 기록으로 볼 때 고려 문종 때 도선 국사, 충렬왕 때 일연국사가 감로사에 있을 때 사찰이 크게 번성하여 고려 충렬왕이 ‘남방제일선찰’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적기」 말미에는 “1067년(문종 21) 道詵國師가 세 번째 창건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도선 국사는 통일신라 말 지리산 남부에서 활동한 승려(827~898)로 고려 문종대(1046~1083)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사적기」에 고려 문종대 인물로 묘사되어 있어 동명이인(同名異人)일 수도 있으나 고려 때 국사 칭호를 받은 승려 중 도선은 통일신라 말의 도선이 유일하므로 「사적기」의 도선 국사는 착오로 보인다. 그리고 도선의 탑호를 ‘연기(烟起)’라고 했는데, 이 또한 창건 설화에 등장하는 연기조사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선 국사에 관한 언급에 이어 “일연국사가 조(照)의 뒤를 이어 머물렀다(國師一然踵照而住)”고 적어 놓았다. 일연국사(1206~1289)가 머물러 있을 때 천여 명의 대중이 수행하는 사찰이 되어 인근 화엄사와 동격의 지위를 얻고 마침내 고려 충렬왕으로부터 ‘남방제일선찰’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했다. 승 일연(一然, 1206~1289)은 충렬왕대(1274~1308) 승려로 普覺이란 시호를 받은 가지산문 승려로, 그의 행적에서 감로사와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적기」의 중창 기록에서 일연은 보이지 않으며, ‘남방제일선찰’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기여했으나 감로사의 역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천은사의 전신인 감로사는 고려 때 여러 번 중창된 것으로 보이며, 가지산문에 속한 선종(禪宗) 사찰로 사격(寺格)을 유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불교의 위축 기에도 3명의 국사¹²⁾(덕운 · 보조 · 도선)가 거쳐하며

10) 가지산문의 宗刹은 보림사 외에 가지산문의 두 번째 선찰이라는 의미에서 감로사를 ‘동방제이선찰’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1) “逮高麗十一世文宗大王二十一年丁未 亦有國師 法諱道詵 塔号烟起 靈巖郡人也 … 國師一然踵照而住 衆盈千餘法雷天振 得與華嚴寺同時并峙…忠烈王陞寺爲南方第一禪刹也”

12) 한편 천은사에는 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의 원불로 전해지는 여말선초에 만든 금동불감(보물 제1546호)이 있다.

중창한 사찰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찰의 위상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3)조선시대 천은사 중창

조선시대 감로사(천은사)에 관한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1592년 임란 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방어로 왜군이 전라도를 침략하지 못했지만, 1597년 정유재란 때는 왜군이 전라도에 들어와 사찰들을 불태우기도 했다. 이때 감로사(천은사)도 예외 없이 피해를 입었다. 정유재란 당시 감로사도 화(禍)를 당했으며, 중창은 왜군이 물러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졌다. 「사적기」에 보이는 세 번째 중창은 1610년(광해군 2)에 정혜선사(惠淨禪師)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영남에서 온 혜정선사는 감로사가 3명의 국사가 머물던 고찰이라는 것을 알고 중창을 시작하여 법당과 좌우 낭사(廊舍), 동서 요사채 등을 새로 지었다. 그 후 1678년에 다시 화재로 사찰이 크게 훼손되어 네 번째 중창을 시작하여 1679년(숙종 5)에 마쳤다. 당시 중창을 주도한 사람은 방장 祖裕禪師이며, 이때 사명(寺名)을 당초 감로사에서 천은사로 바꾸었다.

사명(寺名)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1679년(숙종 5) 조유 선사가 절을 크게 중수할 무렵 절의 샘가에 큰 구렁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무서움에 떨게 하므로 이에 한 스님이 용기를 내어 잡아 죽였더니 그 이후로 샘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았다. 그래서 샘물이 숨었다는 의미에서 사명을 감로사에서 ‘泉隱寺’로 바꾸었다. 그런데 감로사에서 천은사로 이름을 바꾼 뒤 원인 모를 불이 자주 일어나자 사람들은 절의 水氣를 지켜주던 구렁이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 조선 4대 명필 중 한 명인 李匡師(1705~1777)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水體로 ‘智異山 泉隱寺’라고 쓴 현판을 일주문에 달게 했더니 그 뒤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천은사 일주문에는 이 광사가 수체(水體)로 쓴 ‘지리산 천은사’ 현판이 걸려 있다. 천은사 극락보전 정면에 걸려 있는 ‘극락보전(極樂寶殿)’이라고 쓴 현판도 이광사가 수체로 쓴 것이다.

「중창사적서」는 1698년, 「사적기」는 1707년에 각각 필사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중창까지의 천은사 사적만 남아있어야 하지만 말미에 “영조 50년(1774) 惠庵禪師가 여섯 번째 창건하다.”라는 기록이 부가되어 있다. 이는 후대에 와서 당시 중창 연혁을 추가한 결과로 보인다. 지금의 극락보전은 1774년에 혜암 선사가 천은사를 중창할 때 지은 법당으로 보이며, 당시 李敬倫(1735~1789)이 지은 「泉隱寺法堂上樑文(1774)」(이하 법당상량문)을 통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풀과 뿌리마저 다 태워 도량은 텅 비고 청정한 세계는 초토화된 잿더미로 바뀌니 마귀들은 기뻐하고 인천(人天)은 비 내리듯 울었다. 이때 방장산인 운장 삼매의 길을 따라 해탈문에 들어왔다. …이에 원력을 다해

수리하고 건설하니 또한 공덕을 이루 해야될 수 없네. ...선남선녀 시주자의 정성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완성하니, 대장경 보배 전각 위풍 새롭고 강당과 선방은 규모 예와 같았다¹³⁾.”고 했다. 이 기록을 통해 1679년 이후 화재로 천은사가 크게 소실된 후 방장산인 운장의 주도로 다섯 번째 중창이 있었는데, 운장(惠庵允藏, 생몰년 미상)이 바로 혜암선사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화엄(華嚴) 강백으로, 1785년 지리산 화엄사에서 화엄 강회를 열었을 때 1,500여 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이 법회로 인해 운장은 당시 전라도관찰사에게 무고(誣告)를 당해 흑산도에 유배되었으나 그 문도들이 조정에 상변(上辯)하여 풀려나고 오히려 전라도 관찰사가 벌을 받았다.

이 기록을 통해 혜암 운장이 1785년 화엄사에서 법회를 개최하기 전 천은사에서 중창 불사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가람 배치의 골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창사적서」에는 “사찰 내 25개 전각을 오연시로 찬송한다.”라고 하여 각 전각을 시를 읊고 있다. 아래 전각들은 네 번째 중창시 있었던 전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각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漕溪門, 天王門, 明月寮, 興慶殿, 正門, 大樓, 禪堂, 僧堂, 觀音殿, 地藏殿, 香積殿, 十王殿, 七星殿, 羅漢殿, 香爐殿, 殊殿, 極樂殿, 藥師殿, 影子殿, 大法堂” 이 그것이다. 이보다 9년 후에 작성된 「사적기」에는 「중창사적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건물이 보이는데, 「사적기」에만 기록된 전각은 “鍾閣, 仙堂, 冥府殿, 金剛門, 聖殿” 등 이다. 「중창사적서」에는 25개 전각이라 표기하고 20개 전각에 대한 오연시를 지었으므로 「사적기」에 있는 전각은 그 나머지 전각으로 추정된다. 「사적기」에 표기된 仙堂은 「중창사적서」에서 언급한 禪堂의 오기로 보이고, 그리고 「사적기」에는 암자 등의 수행처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차례대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三日庵, 上東庵, 明鏡庵, 修道庵, 內院庵, 上禪庵, 陵虛臺, 見性庵, 下東庵, 隱寂庵, 蘭寺庵, 寶積庵, 道成庵, 瑞雲庵, 南庵, 波根庵, 東庵, 黃嶺庵, 深院庵, 妙□庵, 江淸庵, 龍嶋庵, 神靈庵, 獅子庵, 牛返庵, 祝聖庵, 七星庵, 隱景庵, 白雲臺, 烟觀庵, 松林庵, 開嶺庵”이 그것으로 암자가 30곳, 대(臺)가 2곳이었다. 부속 수행처 등에 대한 기록만 보더라도 18세기 천은사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천은사에는 조선후기에 조성된 괘불탱, 아미타후불도, 삼장보살도 및 1673년(현종 14)에 敬心 · 志鑑 · 能聖 등의 畫僧이 그린 괘불탱(보물 제1340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678년 사찰에 화재가 있었음에도 괘불탱은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극락보전 후불벽에 있는 보물 제924호인 아미타후불탱화는 1776년(영조 52) 信庵 등 14명이 그린 불화이며, 보물 제1546호인 삼장보살도는 1776년에 조성한 것이다.

13) “空餘燼根「卉莊園 淨界」成焦土灰場 魔鬼雷 人天雨泣 維時方丈山人琬藏 由奢摩路入解脫門…而願力或修或建 亦功德不可思量…檀越之誠 善男善女 如雲其集 不日而成 海藏寶殿 面勢如新 經室禪寮 規模仍舊”

4) 일제강점기 천은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관보』에는 천은사의 주지명과 포교당 개설, 사찰 사유재산 매각, 사찰림 벌채 등에 관한 자료가 실려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11월 30일에 『조선총독부관보』에 천은사 귀중품 목록이 게재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31본산의 사찰 소유의 문화재와 생활 용품 등을 모두 ‘사찰재산목록’으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했으며, 이 자료 가운데 귀중품에 관한 것을 『조선총독부관보』에 게재했다.

2. 극락보전의 건축연혁

1) 극락보전 연혁

천은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로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불과 그 협시보살을 모신 전각이다. 1974년에 전남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이 전각의 건축 시기는 1774년(영조 50)로 추정된다. 이경륜(李敬倫, 1735~1789)이 지은 천은사법당상량문(泉隱寺法堂上樑文, 1774)을 근거로 볼 때 그 해에 해암 선사



泉隱寺 法堂上 樑文(1774)

가 천은사를 중창할 때 중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당(法堂)이 지금의 극락보전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찰에서 부처나 보살 등 불교신앙의 대상이 되는 불상을 모신 전각을 총칭하여 법당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과 현 극락보전의 건축형식과 공포형식, 단청 등이 18세기 말의 건축특성을 잘 보여준 점에서 전술한 상량문의 법당이 극락보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대웅전이나 다른 용도의 전각으로 지은 것을 후대 극락보전으로 개액(改額)했을 수도 있다.

18세기말의 다포식 불전인 극락보전의 수미단에는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관음, 대세지보살이 협시한 삼존불상을 봉안했고, 후불벽에는 보물 제924호인 아미타후불탱화가 걸려 있다. 이밖에 불화로 삼장탱화, 신중탱화 및 후불 벽화로서 수월관음도가 있는데, 삼장탱화는 1776년(영조 52)에, 신중탱화는 1833년(순조 33)에 조성한 것이다. 현판 및 상량문으로서는 1886년(고종 23)의 <개금불사동참대시주>와 근래의 <법당상량문>이 있고, 그 밖에 동종(銅鐘)과 괘불함도 있다. 극락보전 앞에는 최근에 조성한 석등이 있다.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단층 팔작지붕 불전으로 정연하게 쌓

은 장대석 기단 위에 활주를 세워 추녀를 받친 모습이다. 평방 위에 내4출목, 외3출목의 주상포와 공간포를 놓아 상부가구를 지지하도록 했다. 공간포는 정면과 배면에 2구씩, 좌우 측면에 1구씩 배열되어 있다. 외부공포의 살미침차는 연화초를 밑에 조각한 쇠서와 수서로 구성한 것으로 조선후기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며, 정면 어칸 좌우 기둥 윗몸의 받침재 위에 돌출시킨 용두와 추녀 밑의 용고리 조각도 후기적이다. 고주의 좌우에는 후불벽을 3칸으로 만들려고 가는 기둥을 세워 중도리 밑에까지 올렸다. 어칸 후불벽에 아미타후불도(1776년작, 보물 924호)를 걸고 좌우 칸은 흰벽으로 남겨 두었다. 좌우로 확대된 후불벽에 맞추어 불단을 장대하게 만들고 아미타삼존불 좌상을 봉안했다. 향 우측 벽에는 삼장탱화(1776년작)를, 향 좌측 벽에는 제석천룡도(1833년작)를 걸어 놓았다.

2)극락보전의 수리 이력

1974년에 전남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이후 두 차례 수리한바 있다. 1985년 3월에 수리한 바 있고, 이어 1996년에는 아미타후불탱화 주변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극락보전의 지붕 산자 이상을 해체하고 수리한 바 있다.(표.1) 1996년 보수 이전의 건물 상

표 53 1996년 극락보전 수리 내용

- | |
|--|
| <p>□ 사업 명 : 1996년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 주변정비 사업(극락전 반와 보수)</p> <p>○ 예산 : 125,170(천원) [국비 70,000, 지방비 30,000, 자부담 25,170(천원)]</p> <p>○ 지침 : 산자 이상 해체하여 부식재 교체하고 번와 보수한다. 균열된 기단을 보수하고 주위의 불량한 형태의 견치석 석축은 고증을 얻어 원형대로 보수한다.</p> <p>○ 내용: 기단공사 : 측면, 배면의 견치석축 해체 후 자연석 기단 설치
 목공사 : 평고대, 연합 100% 교체, 보수
 지붕공사 : 기와 해체 잇기(172㎡)</p> |
|--|

태는 지붕 기와의 노후, 퇴락이 심하고, 근년에 자체 보수 시 기단을 견치석으로 쌓아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후면에 위치한 석축의 일부 구간도 균열 이완되어 있었고, 석축은 시멘트 몰탈을 덧바른 조잡한 상태였다. 이 같은 보전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1996년에 지붕의 산자 이상을 해체하여 부식재를 교체하고 번와 보수했다. 당시 수리공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균열된 기단을 보수하고 주위의 불량한 형태의 견치석 석축을 원형대로 수리했으며, 측면, 배면의 견치석 기단을 해체하고 자연석 기단을 설치했다. 그리고 지붕의 평고대, 연합을 100% 교체하고, 지붕 기와도 신재로 교체했다.

이밖에 1992년 5월 극락보전에 봉안된 아미타후불도의 도난방지 시설 설치 및 표구를 한바 있고, 2002년 4~5월에도 아미타후불도(보물 제924호)¹⁴⁾를 추가로 수리한바 있다. 극락보전 내부의 괘불도(보물 제1340호)는 2006년 1월에 초본의 보존 처리를 완료한바 있다. 이처럼 천은사 극락보전은 1996년의 수리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 보존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3) 극락보전의 편액과 주련

천은사 극락보전은 정유재란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1678년(숙종 4)에 재건한 후 1774년(영조 50)에 다시 중건한 것이다. 극락보전이라고 새긴 현판(126.5×297cm)은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1774년경 쓴 것으로 추정된다. 편액은 최근에 보채(補彩)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판 테두리의 五彩가 화려하다. 현판 향 좌측 하단의



천은사 극락보전 현판

方印에 ‘圓嶠’라고 새긴 도장이 남아 있어 이광사의 글씨로 보인다. 편액 글씨는 해서(楷書)의 정법을 따르면서도 강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骨氣를 강조한 점이 특징으로, ‘寶’자와 ‘殿’자에는 떨리는 듯 한 고전(古篆)의 필획 느낌이 있다.

그리고 극락보전의 정면 네 기둥에는 柱聯이 걸려 있다. 향(向) 좌측부터 차례대로 ‘極樂堂前滿月容’ ‘玉毫金色照虛空’ ‘若人一念稱名号’ ‘頃刻圓成無量劫’이라는 글귀를 새긴 주련이 걸려있다. 주련 중 ‘頃刻圓成無量劫’이라고 쓴 주련에 ‘壬戌秋七月 惺堂 金敦熙書’라고 작성연도와 작자를 밝혀놓아 성당(惺堂) 김돈희(金敦熙, 1871-1937)가 1922년(임술)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천은사에 현존하는 ‘藥師庵’과 ‘方丈禪院’의 현판 글씨도 김돈희의 작품이다.



주련

3. 극락보전의 각부 특징과 건축특성

1) 각부(各部) 특징

(1) 배치 및 평면

천은사 중심사역의 주요 전각은 남쪽의 사천왕문과 보제루, 극락보전으로 이루어진 주축 선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심부의 가람배치는 산지 중정 형으로 극락보전

14) 극락보전(極樂寶殿)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로 문화재 지정명칭은 “천은사극락전아미타후불탱화”로 되어 있다.

앞 중정을 중심으로 남쪽에 보제루, 중정 동서에 설선당과 화승당이 마주보며 배치된 형태이다. 극락보전을 향해 좌측에는 침성각과 요사채가, 우측에는 명부전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뒤쪽에는 삼성각을 비롯하여 관음전, 팔상전, 응진전, 진영각 등의 전각들이 동서축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중정 남측에 자리 잡고 있는 보제루 향 좌측에는 화운당, 향 우측에는 종각이 위치하고 있다. 보제루에서 남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사천왕문이 자리잡고 있다. 사천왕문의 앞쪽 진입부에 매점, 수각, 수홍루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중심 사역에서 동북쪽으로 떨어진 조용한 터에 선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선원에는 방정선원과 서래당, 샴위장, 화장실, 사주문 등이 자리잡고 있다.



구례 천은사의 현황 및 가람배치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면적은 86㎡(26평)이다. 4면에 기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면만 다듬은 돌로 높게 쌓은 것이고, 좌우 측면과 배면의 기단은 공히 자연석을 사용하여 낮게 쌓은 외벌대 기단이다. 정면의 기단은 길이가 짧은 장대석 모양에 가까운 석재를 5단으로 쌓아 만든 것이다. 정칸의 앞쪽에는 다듬은 돌로 조성한 돌계단이 놓여 있고, 돌계단정면에는 다듬은 판석을 사용하여 마치 보도처럼 땅바닥을 장방형으로 포장해 놓았다. 정면 기단의 좌측에는 돌로 만든 괘불대 지주가 시설되어 있다. 그리고 좌우 측면과 배면의 자연석 외벌대 기단은 길이 1m 내외의 제법 큰 자연석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며, 상면에는 강회다짐으로 마감했다. 기단의 네 모퉁이에는 자연석 초석을 놓고 활주를 세워 추녀를 받도록 했다. 외진에는 큼직한 자연석을 초석으로 사용하여 원주를 세웠으며, 기둥 사이 하방 밑에는 고막이를 시설하고 매 칸에 1개 정도의 환기구를 시설했다. 전술한 기단과 초석 등은 보존상태와 석재의 시공 및 가공 상태를 볼 때 1996년 수리 시 신재를 사용하여 새로 조성한 것으로, 기법 등에서 고졸한 모습과 특별한 학술적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천은사 극락보전 정면

평면 실측 치수는 기둥 하부를 기준으로 도리 방향 11,063mm, 보 방향은 7,708mm이다.

다포식 팔작집인 극락보전은 주상포(柱上包) 외에 주간장(柱間長)에 따라 1~2구의 공간포를 사용하여 지붕 하중을 지지하고 있다. 공포의 간격은 정면 퇴칸의 경우 공간포 2구를 사용하여 1,230mm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주간이 좁은 측면 퇴칸에도 1구의 공간포를 사용하여 1,245mm의 유사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간장이 넓은 측면 정칸만 공포간격이 약300mm 더 크다. 이는 측면의 정칸을 넓혀 내부에 넓은 예불공간을 확보하려 했던 건축의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면구성은 유사 규모의 타 불전에서 나타나므로 조선후기 불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천은사 극락보전과 평면 규모가 유사한 사례는 영광 불갑사 대웅전, 고창 선운사 참담암 대웅전을 들 수 있다. 불갑사 대웅전은 다포식 팔작집인 점은 동일하나 건립시기에서 약 100여 년 차이가 있고, 주간 설정과 장단변비에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불갑사 대웅전은 장단변비가 1.5로 정면과 측면이 3:2의 비율을 보이고, 주간장은 공포 간격의 배수(倍數)로 설정되어 있다. 즉 주간장의 경우 공포간격을 기준으로 정면이 3배, 측면이 2배로 조선후기 다포식 불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밖에 1774년에 중수한 천은사 극락보전과 비슷한 시기에 지은 나주 불회사 대웅전(1799)이 있다. 나주 불회사 대웅전은 천은사 극락보전과 비슷한 시기의 건물이나 측면의 정칸 폭을 다소 넓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천은사 극락보전은 조선후기 다포계 불전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 주간장(柱間長)을 공포간격의 배수로 설정하되 측면 정칸의 폭만 1자 정도 넓혀 예불공간을 확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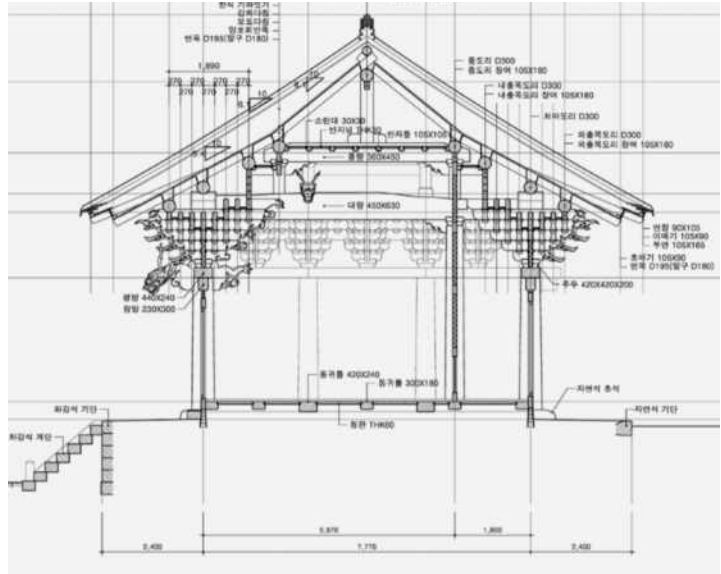
(2) 상부가구(架構)와 구조, 지붕

천은사 극락보전의 가구(架構)는 1고주 5량가이다. 조선후기 일반적인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 불전처럼 내진고주와 대량, 종량을 사용하여 1고주 5량가의 상부가구를 구성했다. 대량 위에 동자주를 놓아 종량을 받도록 했다. 즉 동자주 상부에 주두를 놓아 종량을 지지하게 했으며, 동자주에 주두와 뜯창방을 사용하여 가구를 보강했다. 종량의 좌우 양단에 팔각 단면의 중도리와 받침장여를 걸구하여 연목을 지지하도록 했다. 종량의 중앙부에 키 큰 동자주형 대공을 세워 중도리와 받침장여를 받게 했다. 도리의 단면은 반자에 의해 은폐되어 있는 내목도리와 중도리만 팔각형이고, 노출되어 있는 외목도리와 주심도리는 원형이다.

종량 좌우에 놓인 중도리 외에 내목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를 사용하여 연목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하도록 했다. 종량을 받치는 동자주에서 내목도리 쪽으로 짧은 보를 보내 그 위에 내목도리를 올려놓았으며, 동자주를 관통한 보의 단부는 보아지형으로 초각되어 있다. 도리의 간격을 살펴보면 중도리와 내목도리사이가 840mm, 내목도리와 주심도리 사이가 1,080mm, 주심도리와 외목도리 사이가 810mm이다. 주심도리를

기준으로 내외 출목도리의 간격을 살펴보면 외목도리까지의 간격이 30mm 정도 더 크다. 장연을 지지하는 외목도리에서 중도리까지의 거리(2,730mm)가 외목도리에서 부연 말구까지의 거리(1,940mm)보다 790mm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심에서 부연 말구까지의 거리와 외목도리에서 중도리까지의 거리는 공히 2,730mm이다.

전각 내부에는 후불벽을 형성하는 내부고주를 좌우 측면의 주열(柱列)보다 뒤로 후퇴시켜 배치하는 移柱法이 사용되었다. 들보의 구성은 정면 공포 상부와 내부고주 상부 사이에 대량을 걸고, 그리고 고주의 주두에서 후면 공포까지는 대량과 같은 높이의 짧은 뒷보를 사용했다. 대량의 머리는 정면 주상포의 사제공 상부에, 그 뿌리는 내부고주 위에 놓여 있다. 뒷보의 머리는 내부고주 위에서 대량과 반턱이음 되어 있고, 뒤는 배면 주상포의 사제공에 놓여 있다. 대들보와 퇴보의 이음은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인할 수 있으나 반턱이음하고 축으로 고정한 것으로 보이나 두겹주먹장이음이나 메뚜기장이음의 가능성도 있다. 극락보



천은사 극락보전 종단면도

전에 사용된 대량은 조선후기에 널리 사용된 폭보다 운두가 큰 장방형에 가까운 구형 보로, 본래 형상을 살려 치목하여 대개 전면 쪽이 굽고 후면 쪽이 가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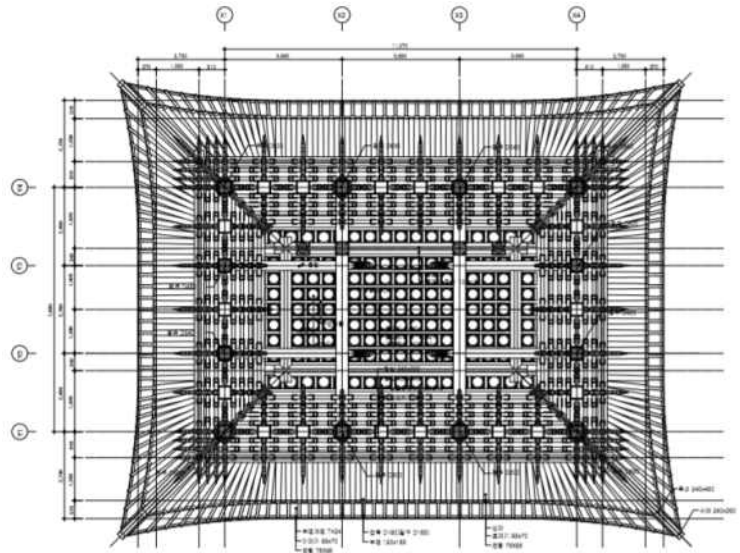


천은사 극락보전 3D스캔 이미지

팔작지붕의 천은사 극락보전의 좌우 측면에는 각각 2개씩 모두 4개의 층량이 사용되었다. 즉 좌우 측면 제2열과 제3열의 주심(柱心)에 놓인 주상포와 대량 사이에 2개씩의 층량을 사용하여 측면의 연목과 지붕하중을 받치도록 했다. 층량에는 위로 만곡된 곡재를 사용했으며, 한쪽 끝은 정칸의 좌우 기둥 위에 놓인 주상포의 내축 4제공에 결구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대량 위에 놓여 있다. 측면 제2열의 주상포와 결구된 층량의 머리에는 용두(龍頭)가 조각되어 있으나 제3열의 기둥 위에 놓인 층량은 끝을 직절(直

切)한 형태이다. 층량은 외기도리와 받침장여가 'ㄷ'자 모양을 이루는 상부의 외기(外機)를 지지하며, 내부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외기도리 모서리에 추녀를 고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포식 불전인 이 전각의 4면에는 평방이 사용되었다. 기둥 상부 창방위에 크기 폭450×높이240mm 정도의 평방을 걸고 그 위에 주두를 놓고 주상포와 공간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했다. 모서리에는 창방과 마찬가지로 모서리에는 평방 빨목을 두었는데, 단부를 직절하고 조각장식은 하지 않은 형태이다. 평방빨목은 창방빨목보다 약간 더



천은사 극락보전 양시도

돌출되어 있으며 모서리에서 엽힐장 받음장의 반턱맞춤을 했다. 평방 하부의 외진 평주의 머리에는 사면 공히 창방(240×300mm)을 걸구했는데, 하부의 모서리만 둥글게 치목하여 사용했다. 네 모서리에는 우주 밖으로 빠져나온 창방빨목이 있으며, 빨목의 끝은 둥글게 운궁형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밖에 문상방과 중방에는 폭 105×높이 210mm의 각재를 사용했으며, 하인방에도 폭 105mm, 높이 240mm 정도 크기의 각재를 사용했다. 1996년에 대재적인 수리를 실시하여 구조부의 변형이나 목부재의 부식, 처짐, 갈래 등 보존에 문제가 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으며,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극락보전은 전후면 및 좌우 측면의 평방 위에 외3출목, 내4출목의 주상포와 공간포를 올려놓은 다포식 건물로, 주심도리 외에 내목도리, 외목도리, 중도리, 중도리를 사용하여 상부가구를 구성했다. 외목도리는 외3출목의 5제공 상부에 걸려 있고, 내목도리는 내4출목 선상에 놓여 있다. 내목도리 밑에 연목의 경사에 맞추어 여러 개의 장여를 겹쳐 놓는 방식으로 도리의 높이를 조절했다. 내목도리를 받치기 위해 겹쳐 놓은 장여의 내측에는 여러 가지 별화(別畵)를 그려 놓았는데, 이러한 예는 나주 불회사 대웅전과 해남 미황사 대웅전에서 볼 수 있다.

이 불전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내부고주의 좌우에 고주보다 가는 내고주를 사용한다. 내부고주에서 좌우 측면 쪽으로 약 1,230mm 떨어져 서있는 내고주는 상부의 중도리와 받침장여를 직접 지지하고 있다. 내고주가 지지하는 이 중도리는 측면에서 외기도리와 결구되어 층량 상부의 동자주가 양 끝을 지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외기도리의 모서리 부분을 직접 지지하지 않아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내부고주가 측면 주열에서 약 690mm 뒤로 이주(移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리와 받침장여를 지지하는 위치를 감안할 때 내고주는 구조적인 역할보다 불단의 확장 및 불단의 배경으로 불상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면 평주의 주두 밑에 보 방향의 용두(龍頭)를 결구하여 안초공으로 사용했다.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는 용두(龍頭)는 평방과 반턱으로 결구되어 평방의 머리를 감싸고 있다. 건물 안쪽으로 돌출한 안초공의 뿌리에는 용미(龍尾)가 조각되어 있다. 용두의 밑에는 운공형 짧은 부재가 창방과 십자(十字)로 결구되어 있다. 용두는 매우 사실적인 형태로 조각한 것으로, 그 기량이 우수하다.

이처럼 정면 정간 좌우측 기둥 상부에 용두를 조각한 부재를 안초공으로 사용한 것은 조선후기 불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용두형 안초공은 전남의 여러 사찰에서 나타난다. 원래 안초공은 기둥 상부에 위치하여 상부구조의 결구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재로 장식재 역할과 동시에 기둥 상부의 부재 결구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천은사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불교 건축의 용두형 안초공은 두 부재 또는 세 부재를 이용하여 창방과



천은사 극락보전 용두(좌)와 용미(우)

여수
홍국사 대웅전

순천
선암사 대웅전

고흥
금탑사 극락전

평방이 분리되어 공포의 제공과 같이 사용되었는데, 천은사 극락보전 역시 상하 두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창방 높이에 운공형 부재를 사용하여 창방과 결구하고, 평방의 높이에 용두를 사용하여 평방의 이음부를 감싸면서 주두의 하부까지 감싸고 있다.

천은사 극락보전에서 특징적인 것은 후불벽 좌우에 위치하는 내부고주 상부에 보아지를 끼워 내부고주와 후면 공포를 일체화한 데 있다. 내부고주의 보아지는 후면 공포의 사제공 살미첨차를 연장시켜 고주의 보아지로 사용한 것이다. 즉 후면 공포의 제4단 살미첨차를 내부고주까지 연장시켜 고주의 인방재와 십자(十字)로 결구한 다음 뿔목 형식으로 고주를 관통하여 정면까지 돌출시키는



후면 내부공포 사제공과 내부고주의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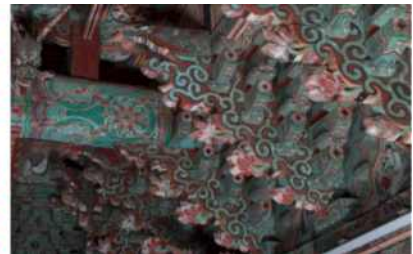
수법으로 고주와 후면 공포의 사이를 구조적으로 일체화 했다. 이를 통해 대들보와 뒷보 결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부고주의 주두 아래에 놓인 인방재는 후불벽의 인방재이면서 한편으로 고주를 잡아주는 창방 역할도 수행하게 했다.

천은사 극락보전의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 귀마루 구성되어 있다. 지붕 좌우측의 합각부는 우주 바로 안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측면의 삼각형 합각벽에는 풍판을 만들 듯이 판재를 세워 대고 줄대목으로 이은 판벽으로 시공했다. 4면의 처마는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로, 연목 위에 평고대를 놓고 부연을 건 다음 부연 끝에 부연평고대를 걸었다. 부연의 양쪽 볼에 얇은 판재로 만든 착고판을 끼웠으며, 부연평고대 위에 연함을 시설하고 암수막새기와의를 덮었다. 지붕에 사용된 한식기와는 1996년 수리시 신재로 교체하여 지붕에서 구(舊)기와의를 찾을 수 없다. 기왓골과 수키와 열은 대체로 정연하며, 기와의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3) 공포 구성의 특징

조선후기 다포식 불전인 천은사 극락보전은 평방 위에 주상포와 공간포, 귀포를 놓아 지붕가구를 받고 있다. 공간포는 정면과 후면에 2구씩, 양 측면에 1구씩 사용했으며, 공포의 간격은 대개 4면이 유사하나 측면의 정간이 퇴칸보다 1척 정도 더 넓다. 이는 정면의 공포 간격을 정배수로 하여 주간장(柱間長)을 결정했던 조선후기 다포식 불전의 일반적인 주간(柱間) 설정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외7포,내9포)으로, 주상포는 주두 상부에 살미와 첨차를 4단으로 짜 올린 것으로 사제공 상부에 대량이 결구되어 있다. 주상포의 경우 직절(直切)된 보머리가 그대로 외부에



천은사 극락보전의 외부공포(좌)와 내부공포(우)

노출되어 있는 반면 공간포에서는 보머리를 봉두형(鳳頭形)으로 처리했다. 제공의 경우 초제공부터 삼제공까지는 연봉(蓮峯)을 조각한 양서형이나 사제공의 쇠서는 수서형이다. 살미첨차는 아래에서 위로 초제공, 이제공, 삼제공, 사익공, 오운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같은 살미 구성은 18세기 이후 다포식 공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을 지나면 살미 구성에서 일종의 형식화가 이루어지는데, 즉 최상단 살미를 구름이나 당초, 봉두, 당초문 등을 조각한 운공형으로 처리하고, 그 아래를 양서형 제공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천은사 극락보전은 살미 구성에서 조선후기 다포식 공포의 형식화 경향을 잘 보여준다.

내부 공포는 4출목으로 판재화된 제공 살미와 장식적인 구성에 특징이 있다. 주상포

는 대들보 밑면까지 사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공간포는 대들보 높이 위로 5제공과 6제공이 부가되어 있다. 공간포의 경우 초제공부터 삼제공까지는 공히 연봉형으로 처리했으나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오제공은 운공형, 육제공은 봉두형이다. 제공의 세부적인 차이를 보면 초제공은 꽃봉오리가 맺힌 모양이고, 이제공은 반쯤 개화(開花)된 봉오리, 삼제공은 만개한 연꽃봉오리 모습이다. 한편 후면 정간에 놓인 내부공포의 경우 살미첨차 내단이 교두형으로 전술한 정면과 양 측면의 내부공포와 다른 모습이다. 주상포의 내부공포는 초제공에서 삼제공까지 모두 교두형이고, 공간포는 6제공까지 교두형으로 되어 있다. 주상포의 사제공은 첨차의 운두를 가진 각재(角材)를 사용하여 뒷보를 받치면서 내부고주의 머리에 결구되어 있고, 내부고주의 앞쪽으로 돌출한 부분을 대량의 하부를 받치는 보아지 형태로 처리하여 후면의 뒷보와 공포 및 내부고주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 내부고주에서 길게 뻗은 사제공 부재와 후불벽의 상인방을 십자(十字)로 결구하고 상부에 주두를 놓아 보아지와 인방을 잡아주도록 했다. 이처럼 제공을 길게 돌출시켜 후면 공포와 내부고주를 일체화하는 방법은 전면 공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배면의 내부고주와 공포를 견고하게 잡아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면 정간의 내부 공포를 교두형으로 처리한 것은 해남 미황사 대응전에도 보이나 내외 공포의 삼제공까지를 교두형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천은사 극락보전과 차이가 있다. 미황사 대응전도 후면 내부 공포의 사제공 살미첨차가 내부고주와 결구되어 있고, 앞쪽을 보아지 형식으로 처리한 것은 천은사 극락보전과 같다.

천은사 극락보전의 주심과 출목에는 대소 첨차가 사용되었으나 주심의 대소 첨차와 출목의 대소 첨차의 길이가 달라 모두 4종류의 첨차가 사용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심 대첨차가 1,045mm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출목 대첨차(905mm), 주심 소첨차(705mm), 출목 소첨차(615mm)의 순이다. 천은사의 경우 주심 소첨차의 양 단부를 따내 소로를 배치하고 그 위에 주심 대첨차를 올린 형태이다. 형태면에서는 주심첨차는 끝을 직절하고 하부를 사절한 것이나 출목첨차는 교두형으로, 그 각도도 출목첨차가 다소 완만하다. 그리고 주심첨차와 출목첨차 공히 공안을 두지 않고 상부를 평평하게 치목한 것이다. 다포식 공포의 첨차 크기만 고려할 때 미황사 대응전과 같이 주심과 출목의 구분 없이 대소 첨차의 두 종류만 사용하여 공포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천은사 극락보전은 길이와 형태가 다른 주심과 출목의 4종류의 대소 첨차를 사용하여 공포를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선운사 참당암 대응전은 주심에 소첨, 중첨, 대첨의 세 종류의 첨차를 사용한 사례이나 출목 소첨과 대첨의 크기가 주심의 소첨, 대첨과 같아 첨차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목첨차보다 주심첨차의 운두가 크고, 포벽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첨차의 길이를 조절하기도 하나 천은사 극락보전은 주심과 출목에 길이가 다른 첨차를 사용하여 주심첨차와 출목첨

차의 구분이 명확하고 공포가 더욱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했다.

(4) 창호와 벽체 및 불단 장엄

천은사 극락보전의 정면 매 칸에는 삼분합문이 달려있다. 좌우 기둥에 붙여 문선을 세우고 그 상하에 문상방과 문하방을 보내 문틀을 짜고 거기에 각각 세 짝의 밖 여단이문을 달아 놓았다. 정칸에는 하부에 궁창널이 있는 세 짝의 밖여단이 소슬빛꽃살문이 달려있고, 좌우 퇴칸에는 가운데 궁창널이 있는 소슬 빛살문을 두고, 그 좌우에 궁창널이 있는 정자살문을 달아 삼분합문을 구성했다. 좌우 측면의 정면 쪽 퇴칸에는 외 짝의 궁창널이 있는 소슬빛살문이 달려있고, 좌우 측면의 후면 쪽 퇴칸의 중방 위치에는 같은 형태의 작은 소슬빛살문의 벼락단이 창이 달려있다. 후면에는 정칸에만 폭이 좁은 두 짝의 정자살 여단이문을 시설하고 그 좌우측 벽은 창호 없이 토벽으로 처리했다.



수미단 상부의 보개와 장엄

이들 창호의 형식과 풍화 상태 들을 볼 때 1996년에 보수하면서 교체된 것으로 보이며, 벽체도 1996년에 수리한 것으로 고식의 기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외벽에는 벽선과 중방을 사용해 여러 개의 면으로 분절하고 중방 상부 벽면에 벽화를 그려 놓았다.

천은사 극락보전에는 후불벽에 붙여 앞으로 돌출한 형태의 수미단이 있고, 그 상부 천장에는 불교 장엄조각이 매달려 있다. 수미단은 내부의 마루 귀틀 위에 호형(弧形)으로 조식하고 검은색을 칠한 목재 하대 위에 3단의 중대를 두고 맨 위에 두꺼운 상판을 덮은 형태이다. 3단의 중대는 구슬문양을 새긴 가는 격선을 적절히 배치하여 크기가 다른 다양한 칸막이를 만들어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안상을 투각한 판재를 끼워 장식했다. 안상 안쪽에는 무늬를 새기지 않은 민무늬 판재를 덧대 놓았다. 중대의 칸막이 표면에는 본래 뇌록을 칠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퇴락하여 일부만 남아 있다. 불상은 수미단 상부에 방형의 불상 받침을 놓고 올려놓았으며, 불상의 주위에는 낮고 좁은 탁자를 둘러 공양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수미단의 중대를 형성하는 격판에는 다양한 형태의 꽃과 나무, 물고기, 코끼리, 오리, 사슴, 비익조 등을 투각하지만 천은사 극락보전의 수미단은 이러한 조각이 없는 간략한 형태이며, 후불벽 뒷면의 출입구를 통해 수미단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다.

불상 상부에 보개(寶蓋)를 만들고 그 안쪽에 각종 장엄 조각을 매달아 놓았다. 천장의 우물반자에 붙여 중앙부가 돌출한 철(凸)자형 보개를 만들고 그 안에 판재를 사용하여 운문(雲文)과 용두(龍頭)와 용신(龍身) 등을 정교하게 조각한 장엄 물을 달아 놓

았다. 보개와 장엄 조각물에는 단청을 베풀었으며, 이는 후불탱화와 불상, 내부공포와 조화를 이루며 18세기말 불전 내부의 불교장엄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단청

천은사 극락보전의 단청은 내와가 크게 다르다. 내부에는 조선후기의 古式 단청이 남아 있으나 외부 단청은 개채되어 가치 있는 단청을 찾아보기 어렵다. 내부의 단청은 금단청으로 다양한 형태의 머리초, 단독문, 금문, 별화와 더불어 벽화가 그려져 있다. 대량, 창방과 평방 등의 체목부에는 연화와 녹화를 주(主) 문양으로 하는 머리초를 비롯하여 용·동자·학·사자 등 다양한 畫材의 별화 등이 남아 있다. 첨차와 살미 등의 공포부에는 녹화를 주 문양으로 하는 머리초와 단독문 등이 있으며 천정부의 반자청판에는 응련화와 모란·연화·학 등이 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판벽과 포벽 등의 벽체부에는 조사(祖師) 및 나한(羅漢), 그리고 산수, 화조, 화훼 등을 그렸다.

육안 및 표면 조사결과 단청 및 벽화의 채색 안료는 곳곳에서 탈락된 흔적이 확인되며, 단청 및 벽화 채색 안료를 분석한 결과 백색은 연백을 사용했으며, 채색 안료 중 적색은 주홍과 육색의 경우 장단과 진사를 혼합하여 색상을 표현했고 장여의 휘에는 석간주를 사용했다. 대량의 녹색에는 공작석malachite과 동일한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염기성 탄산동인 석록(atacamite)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첨차의 경우 당초 뇌록을 사용했으나, 덧칠하는 과정에서 석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색은 군청(ultramarine blue)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대량

대량에는 응련화병머리초가 시문되어 있다. 온 바탕의 주문양인 응련은 속주화 곁응련으로 이를 곁곱팽이 대신 황실이 장식된 파련 잎이 감싸고 있다. 반바탕의 주문양은 입면연화로 연화와 석류동, 둘레주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번엽이 묘사된 곁곱팽이가 감싸고 있는데, 번엽은 끝이 뾰족한 꽃잎 모양으로 여타 단청에서 보기 어려운 표현이다. 응련과 연화를 각각 감싸고 있는 파련 잎과 곁곱팽이의 사이에 연꽃잎이 장식되어 있다. 瓶모양을 이루는 둘레 실은 녹실과 황실이며, 온머리초를 감싸고 있는 실과 반머리초를 감싸고 있는 실이 교차되는 지점에 질림을 장식했다. 둘레실의 끝머리는 파련 잎 모양으로, 둘레실이 만나는 병의 목 부분에는 겹녹화를 두어 장식하고 육색, 삼청, 석간주 초빛의 바자휘를 3회 배치하였다. 휘 끝에는 향아리를 장식하고 쇠침은 이중이며 먹당기기 없이 황실로 마무리했다. 뒷목과 접하는 직휘는 결련금직휘로, 직휘 역시 먹당기기 없



대량머리초

이 황실로 마무리했다. 대량의 계풍에는 모두 4점의 운룡도가 묘사되어 있는데, 용의 몸통 색을 다르게 채색해 백룡, 황룡, 적룡, 청룡으로 표현했다. 용은 보주를 쥐고 있거나 잡으려는 모습으로 표정이나 자세가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안정된 비례, 강약이 두드러지는 필선, 다양한 채색기법 등이 우수하다.



대량의 계풍 별화

②종량

종량에는 용련화병머리초가 시문되어 있다. 대량머리초와 반대로 병의 목 부분이 직휘를 바라보고 있다. 온 바탕의 주 문양은 대량머리초와 같이 중심부에 용련화를 놓고 이를 파련문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이나 대량머리초에 비해 단순하다. 즉 용련화 속에 주화가 보이지 않으며 용련화를 에워싸고 있는 파련문도 채색이 단조롭고 황실이 생략되어 있다. 반바탕의 주문양은 입면연화로 연화 위에 석류동을 얹고 이를 둘레주화와 번엽곱팽이가 둘러싼 모습이다. 병모양을 이루는 둘레실은 녹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병의 목 부분에는 겹녹화가 장식되어 있다. 휘는 인휘로 육색과 석간주 초빛의 2회를 배치하고 휘끝에 딱지를 장식했다. 머리초는 녹실로만 구성된 이중쇠첩으로 되어있고, 직휘는 보이지 않는다.

③평방

평방에는 용련화병머리초가 시문되어 있다. 머리초는 반바탕반머리초 형식으로 부재의 좁은 폭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평방 아래쪽 반바탕의 용련화는 대량과 동일한 형태이나 평방 위쪽 반바탕의 용련화는 꽃잎의 끝부분이 직삼각형으로 말려있으며 용련화의 둘레를 황실이 장식된 녹화가 에워싸고 있다. 위아래 용련화 모두 녹화와 녹화 사이에 연꽃잎을 장식했다. 둘레 실은 녹실과 황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이 교차되는 지점에 질림이 장식되어 있고 실의 끝머리는 나선형으로 감겨있다. 휘는 바자휘로 육색, 군청, 석간주 초빛의 3회를 배치하고, 휘끝에는 향아리를 장식했다. 이후 쇠첩을 이중으로 두어 머리초를 마무리하였는데, 마지막 쇠첩실에 황실이 추가되어 있다. 직휘에는 갈모금을 시문하고 뒷목의 공터에도 금문을 가득 그려 넣었는데, 현재 사용되는 차련금과 유사하다. 계풍에는 학, 사자, 봉황 등의 瑞獸圖와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의 童子圖, 墨竹圖 등을 그려 놓았다.

④창방

창방에는 연화병머리초가 시문되어 있는데, 종량처럼 병의 목 쪽이 직휘를 바라보고

있다. 온바탕의 주문양은 입면 연화로, 연화를 중심으로 들레주화와 석류동, 향아리가 결합된 모습이고, 그 들레를 변엽이 묘사된 걸곱쟁이가 에워싸고 있다. 변엽은 대량과 같이 끝이 뾰족한 꽃잎모양이며 걸곱쟁이 사이에는 연꽃잎이 장식되어 있다. 반바탕에는 평방의 주문양과 동일한 반머리초 형식의 웅련화가 시문되어 있는데, 평방머리초와 만나 하나의 웅련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들레실이 만나는 병의 목 부분에는 역시 겹녹화를 배치했다. 직휘에는 걸련금이 시문되어 있고, 휘는 바자휘로 육색, 군청, 석간주 초빛의 삼휘를 배치했다. 평방과 같이 휘끝에는 향아리를 장식했으며 이후 쇠첩을 이중으로 두어 머리초를 마무리했는데, 마지막 쇠첩실에 황실이 추가되어 있다. 계풍에는 동자도, 운룡도, 봉황도, 墨鳥圖 등이 묘사되어 있다. 평창방의 별화는 풍혈로 구획한 뒤 그 안에 그리거나 계풍 전체를 배경삼아 그리기도 했는데, 풍혈은 원형에서 방형 등 모양이 다양하다.

⑤기둥

기둥에는 녹화와 드림으로 구성된 주의초가 시문되어 있다. 주의초는 녹색 초빛과 석간주 이빛으로 채색한 색 띠를 가운데 두고 위쪽에 녹화머리초, 아래쪽에 드림주의를 배치했다. 녹화머리초는 오금질림으로 연결된 겹녹화를 이중으로 두고 그 위쪽으로 육색과 석간주 초빛



기둥의 주의초

의 늘휘를 배치한 뒤 이중쇠첩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드림주의는 여의두문 띠를 일렬로 두른 뒤 그 아래로 반주화를 배치하고 드림을 내려뜨린 모습이다.

⑥공포부

가.첨차

첨차는 부리, 벌치, 뱃바닥에 문양이 도채되어 있는데, 먼저 부리에는 웅련화를 시문하고 가운데 마름모꼴 공터는 먹으로 채색했다. 벌치와 뱃바닥에는 녹화머리초를 연결해 시문했다. 주문양은 겹녹화를 오금질림으로 연결한 형태이며, 휘는 늘휘로 육색과 석간주 초빛의 이휘를 배치하고, 휘끝에는 딱지를 장식했다. 쇠첩을 이중으로 두어 머리초를 마감했다.

나.제공, 주두, 소로

극락보전 내부 공포의 제공은 연봉형 제공, 운공형 제공, 봉두형 제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봉형 제공부터 운공형 제공까지는 전체적으로 초틀임이 도채되어 있고 가장 위쪽에 위치한 봉두형 제공에는 날개와 깃털 등을 묘사해 봉황의 모습을 표현했다. 제공의 배면은 동흘림 기법으로 처리한 것이다. 주두에는 3개의 겹녹화를 오금질림으로 연결하고 그 위쪽으로 휘를 배치한 형식의 녹화문을 시문했는데, 가운데 녹화를 거꾸로 배치해 변화를 주었다. 휘는 늘휘로 육색과 석간주 초빛의 2휘를 배치했다. 소로는 중앙에 겹녹화를 배치하고 그 위쪽으로 2개의 색대를 두른 모습으로, 색대는 주두에 도채된 휘와 동일한 기법으로 채색했다.



제공

제공 및 봉두

다.포벽

극락보전 포벽에는 주로 나한도를 그렸는데, 내부에서 확인되는 나한도는 모두 23점으로, 동·서·남측의 포벽과 북측 양 끝부분 포벽에 배치되어 있다. 나한도는 먹으로 간단히 묘사한 바위나 나무를 배경으로 다양한 자세의 나한을 진채로 표현한 것으로, 나한은 간경(看經)하는 모습, 염주·종·여의(如意) 등의 지물을 들고 있는 모습, 계곡에서 목욕하는 모습, 향을 피우는 모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경의 표현과 인물의 자세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화보(畫譜)의 도상을 차용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북측의 나머지 5개 포벽에는 수묵기법으로 그린 산수도, 蘆雁圖, 梅鳥圖, 墨竹圖 등이 남아 있다.

⑦반자와 판벽

가. 반자청판과 반자들

반자청판에는 응련화, 모란, 연화, 학 등이 그려져 있다. 응련화는 삼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의 꽃심은 붉은색으로 그 위에 범자문이 쓰여 있다. 모란문은 만개한 모란과 봉우리, 잎사귀로 구성되어 있는데 꽃잎을 묘사하고 주홍으로 바탕칠 한 뒤 꽃잎의 끝부분을 흰색으로 바림하여 화려한 모습을 표현했다. 연화문은 연화와 하엽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줄기 아래 부분을 끈으로 묶은 다발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모란 문과 마찬가지로 꽃잎에 바림을 주어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학문은 두 종류로 한 마리만 단독으로 그리거나 쌍학을 묘사했다. 한 마리의 학은 흰 바탕에 연꽃을 입에 문 모습이며 쌍학은 먹 바탕에 연꽃, 모란 등을 입에 문 모습으로 두 경우 모두 瑞氣가 뿜어져 나오는 보주가 함께 묘사되어 있다. 반자틀에는 장



반자청판과 반자들의 단청

귀틀과 동귀틀이 교차하는 부분에 주화를 두고 사방으로 녹화와 늘휘를 배치한 종다라니초를 도채했다. 종다라니초는 이중쇠첩으로 마무리되어 있으며 종다라니초와 종다라니초 사이는 색 긋기로 처리했다.

나. 판벽

판벽에는 마하가섭존자부터 중국의 육조 혜능까지 선종의 조사 33명을 그린 33조사도가 25점 묘사되어 있으며, 이 중 17점이 극락보전 내부 내목도리 위쪽의 판벽에서 확인된다. 이 17점의 조사도에는 인물 옆으로 존명(尊名)이 적혀 있어 이를 통해 33조사를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도는 인물 중심의 간결한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먹으로 배경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진채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조사도(祖師圖)는 조선후기에 유행한 『삼재도회』나 『홍씨선불기종』 등의 화보에 수록된 도상을 차용한 것으로 지팡이를 어깨에 걸치고 바위에 걸터앉아 있거나 두 손을 무릎 위로 모아 턱을 짚고 앉은 채 움츠리고 앉아 있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주변 인물, 지물 등을 함께 표현하기도 했다.



판벽에 그린 조사도 중 일부

4. 조사자 의견

18세기말에 지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주불전인 천은사 극락보전의 건축 특성은 다음과 같다. 후퇴가 있는 1고주 5량가의 겹처마 팔작집으로, 내부고주를 후면 쪽으로 이주시켜 후불벽과 불단을 구성했다. 특징적인 것은 내부고주 좌우에 다시 키 큰 내고주를 세워 후불벽을 연장했는데, 이는 불상의 배경으로서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더욱 돋보이도록 했다.

외3출목, 내4출 목(내9 외7포)의 다포식 불전으로 정면과 배면의 주간에는 공간포 2구, 좌우 측면의 주간에는 공간포 1구씩 놓여있다. 평면구성과 공포, 상부가구로 볼 때 전형적인 조선후기 특징을 보여주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불전으로, 평면 계획시 주간장(柱間長)을 공포 간격의 배수(倍數)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정면 3칸의 공포간격은 모두 동일하고, 주간장(柱間長)도 모두 동일하다. 측면의 경우 퇴칸의 주간은 공포 간격의 2배이나 정칸의 주간은 이보다 1칸 정도 더 넓다. 이는 정칸의 공포간격을 퇴칸보다 0.5척 더 넓게 설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측면의 주간을 확대하여 내부에 넓은 예불 공간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천은사 극락보전의 영조척(營造尺)은 306~309mm 정도로, 정면과 측면, 기둥 상하부, 공포간격 등으로 볼 때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영조척은 306.95mm이다. 천은사 극락보전의 평면 실측치를 영조척으로 환산하면 당초 정면 36척, 측면 25척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공포간격은 측면 정칸만 4.5척이고, 나머지 칸에서는 모두 4척으로 나타났다. 공포 간격의 배수로 주간장(柱間長)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선후기 다포식 불전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공포는 외3 내4 출목의 공포를 일정하게 배열한 다포식으로, 주두 상부에서 살미와 첨차를 4단으로 짜 올려 공포를 구성하고, 사제공 위에 대들보를 걸었다. 외부 살미의 초각은 초제공에서 삼제공까지는 연봉 양서형이고, 사제공은 수서형, 오제공은 운공형이다. 이는 18세기 이후 제공의 구성형식이 법식화 형식화 되어가는 건축경향을 따른 결과이다. 공포의 구성에 나타나는 특징은 후면 정칸의 내부 공포의 제1단에서 제3단까지의 살미가 교두형이라는 점이다. 해남 미황사 대웅전의 경우 2차 중건 때 사용된 일부 부재가 재사용된 것으로 보이거나 천은사 극락보전의 경우 이와 달리 당초부터 이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두형 공포 상부의 살미 초각과 외부에 사용된다 공포의 살미 초각이 같고, 후불벽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후불벽 뒤쪽에만 간략한 교두형 공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후면 내부공포의 사제공이 길게 연장되어 내부고주와 결구되고, 이것이 내부고주의 앞으로 돌출되어 보아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길게 뻗어 나온 사제공을 사용하여 내부고주와 후면 공포를 구조적으로 일체화한데 특징이 있고, 이는 뒷보와 후면공포의 구조적 안정성을 꾀한 합리적인 구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는 천은사 극락전보다 다소 시기가 앞서는 해남 미황사 대웅전(1754년)에서도 볼 수 있다. 천은사 극락보전의 상부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대량과 종량 및 뒷보를 사용한 이중량의 후퇴 구조이다. 구조는 정면 공포의 4제공 상부에 대량을 놓아 내부 고주와 결구하고, 뒷보 위에 대량을 올려 들보를 연결한 것이다. 이는 당초부터 후면 공포의 사제공이 대들보의 보아지를 겸하면서 내부고주와 일체가 되는 것을 의도한 가구법이라 하겠다.

천은사 극락보전의 특징은 먼저 내부고주와 후면 내부공포의 유기적인 구성 및 내부고주의 상부에서 대량과 뒷보를 일체화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 가구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 공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공포구성과 배열에도 뚜렷한 특징이 있다. 제공 살미의 판재화와 일체화를 비롯하여 초화문(草花文)과 봉두(鳳頭)를 새긴 화려한 공포형식과 공포구성의 법식화 그리고 용두와 용미를 조각한 안초공의 사용, 섬세하고 화려한 반자와 보개, 불교 장엄 등에 보이는 우수한 조각 수법 등은 18세기 말 다포식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밖에 공포 간격의 배수로 설정한 기둥간격,

그리고 측면 중앙칸의 주간을 1자 넓게 설정하는 방식을 통한 내부 예불공간의 확장도 이 건물의 특징이다.

하지만 창호와 벽체 및 외부단청은 이전(以前) 수리시 개변되어 뚜렷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면의 석축 기단과 석계(石階)도 후대 개변되어 당초 원형과는 거리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물 지정 후 고증을 받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최근 극락보전 정면 우측에 조성해 놓은 정원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물로 승격될 경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도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바와 같이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말 다포식 불전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해남 미황사 대웅전,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등과도 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따라서 18세기말의 다포식 불전으로 충분한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은사 극락보전을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7.07.11	대상문화재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4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연혁

사적기에 의하면 천은사는 828년(홍덕왕 3)에 덕운조사(德雲祖師)가 ‘감로사(甘露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으며, 고려 충렬왕 때에는 ‘남방제일선원(南方第一禪院)’으로 불릴 만큼 사격이 높았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사찰이 전소되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시대가 올라가는 유물로는 고려시대 조성된 천은사 금동불감(보물 제1546)이 남아있다. 이 불감은 고려시대 고승 나옹화상(懶翁和尚)의 원불로 전해진다.

천은사는 그 후 1610년(광해군 2)에 혜정선사(惠淨禪師)가 재건하였다. 1678년 화마를 입어 이듬해 단유선사(袒裕禪師)가 중건하였으나 1773년에 또 다시 화재를 입어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다. 이듬해인 1774년에 혜암선사(惠庵禪師)가 남원부사 이경륜(李敬倫)의 도움과 산내 여러 사찰이 힘을 합쳐 극락보전을 중심 불전으로 하여 중창 불사를 크게 이루고 사찰의 이름도 ‘천은사(泉隱寺)’로 바꾼다.

조선시대 천은사는 이와 같이 왜란과 화재로 인하여 2~3차례의 중창의 과정이 있었다. 천은사의 중창의 역사는 사찰에 전하고 있는 불상과 불화 등 정보문화재를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천은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및 대세지보살상(보물 제1889호)은 1610년의 중건된 주불전의 협시불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각승 현진(玄眞)을 비롯한 5명의 조각승들이 1614년에 조성한 불상이다. 천은사 괘불(보물 제1340호)은 1673년에 조성되었다. 이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죽어간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무하기 위한 수륙제와 영산제 등 불교의식이 활발히 성행하는 시기였다.

1774년에 중창한 극락보전이 지금의 천은사 주불전이다. 이 때 건물을 중창하고 내부에 불화를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극락전 후불벽에 걸려있는 아미타후불탱화(보물 제924호)는 1776년(영조 52)에 제작되었으며, 불전의 중단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천은사 삼장보살도(보물 제1888호)도 1776년에 화련 등 14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이다.

2. 입지와 배치

천은사는 화엄사의 말사로써 지리산 서남쪽 기슭에 위치한다. 천은사는 본사인 화엄사가 각황전을 중심전각으로 삼아 화엄불국세계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극락보전을 주불전으로 한 아미타도량이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1774년에 중건한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팔상전, 응진전, 관음전, 진영각, 삼성각, 명부전, 첨성각, 명월료, 설선당, 회승당, 회운

당, 운고루(종각), 보제루, 천왕문, 수홍루 등이 있다.

천은사는 천왕문 - 보제루 - 극락보전으로 이어지는 축이 중심축이다. 주불전인 극락보전 좌우에는 명부전과 침성각이 있고, 보제루, 설선당, 회성당이 극락전 앞마당을 구성한다. 극락보전 뒤쪽에 관음전, 응진전 등 보살단과 팔상전, 삼성각, 진영각이 횡으로 배치되어 또 하나의 영역을 이루고 있다. 선원은 중심 사역 북쪽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3. 건축현황과 특징

천은사 극락보전은 1774년에 혜암선사(惠庵禪師)가 건립하였다. 극락보전을 건립하고 2년 후인 1776년에 아미타불회도(보물 제924호)와 삼장보살도(보물 제1888호)를 제작하여 봉안하였다. 천은사가 아미타 도량으로 모습을 갖춘 것은 그 이전으로 보인다. 천은사는 1614년에 제작된 천은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및 대세지보살상(보물 제1889호)을 소장하고 있다. 이 불상들은 혜정선사(惠淨禪師)가 1610년에 재건한 주불전의 협시불로 보인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의 협시불로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천은사는 1610년 중창 때부터 지금과 같이 극락전을 주불전으로 하는 아미타도량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천은사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기단은 지대석 위에 일정한 길이로 가공한 화강석을 층층이 5단 쌓기 하여 높게 조성하였고 정면 어칸에 맞추어 계단을 설치하였다. 초석은 덩벙주초이며 기둥은 민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이다. 정면 어칸 기둥 상부에는 용두형 안초공을 끼워 장식하였다. 안초공은 기둥 머리와 평방 이음새에 끼워서 평방 이음을 보장하는 구조적 기능과 함께 장식적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도 용두는 평방과 반턱으로 결구하여 맞댐이음한 평방 머리를 감싸고 있다. 용두는 매우 사실적이며, 불전 내부에서는 용의 꼬리 형상으로 돌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면 어칸 기둥 상부에 안초공으로 용두를 조각하여 장식하는 것은 조선 후기 불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법이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장단변비가 1: 1.43의 장방형 구조이다. 정면의 주칸은 12척으로 동일하며, 측면은 정칸이 전후칸 보다 1척 길게 잡았다. 내부에는 고주 2본과 2분의 보조기둥을 세워 후불벽을 넓게 구성하고 불단을 시설하였다. 고주는 측면 평주

열 보다 뒤쪽으로 물려 배치하였다. 예불공간을 넓게 확보하기 위한 이주식(移柱式) 기둥배치는 정치식(正置式)에 비하여 후불벽 뒷공간이 협소하다. 천은사 극락보전은 좁은 뒷공간에도 불구하고 후불벽 뒷벽면에 수월관음도가 그려져 있다. 따라서 배면 어칸에도 출입문을 설치하여 출입과 수월관음도의 채광을 고려하였다. 창호는 정면 3칸 모두 3분합문이다. 어칸은 솟을 빗꽃살, 양협칸은 3분합문 중에서 가운데문은 빗살문, 나머지 문은 정(井)자살 문이다.

공포는 다포형식으로 정면과 배면은 매 칸마다 간포를 2구씩 배치하고, 양측면은 1구씩 배치하였다. 포작은 외3출목 내4출목의 구조이다. 초제공부터 삼제공까지 하단에 연봉을 조각한 양서형으로 구성하고 4제공은 수서형으로 처리하였다. 내부는 4출목으로 더욱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초제공, 이제공, 삼제공의 살미 끝에는 연봉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연꽃이 만개하는 형태를 조각하여 불전을 장엄하였다. 주상포는 대들보 하부까지 4제공으로 구성하였고, 주간포는 대들보 높이에서 5, 6제공이 구성되었다. 5제공은 운공형이고 6제공은 봉두형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배면 어칸의 공포는 내부 살미를 교두형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눈에 띄지 않는 배면부는 공포의 장식성 보다는 구조적 측면만을 취한 것이다. 또한 주상포에서 4제공은 단순한 각재로 처리하였다. 이 부재는 퇴보 하부를 받치면서 내부 고주에 끼워져 보아지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배면의 공포와 고주를 일체화시켜 구조적으로 보다 안정화시킨 수법이다.

극락보전의 가구구조는 1고주 이중량 7량가이다. 내진 고주를 세워 불단을 구성한 평면구조에 따라 일반적인 1고주 5량가 구조를 기본으로 내외 출목 위에 각각 출목도리가 있는 구조이다. 고주는 대들보 하부를 받치며, 고주 위에서 대들보와 퇴보가 연결된다.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량을 받는다.

천정은 우물 반자를 짜고 청판에 응련화, 모란문, 연화문, 학문 등이 그려져 있다. 포벽과 판벽에도 나한도와 33조사도를 회화적으로 묘사하여 장엄하고 있다. 극락보전의 내부 단청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기법도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천은사 극락보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단청에 사용된 안료의 성분 분석 결과 천연 무기안료 외에 화학안료가 검출되지 않아 19세기 이전 단청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4. 조사자의견

1. 극락보전은 천은사의 주불전이다. 천은사는 본사인 화엄사가 각황전을 중심전각으로 삼아 화엄불국세계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극락보전을 주불전으로 한 아미타도량이 다. 천은사는 1610년 중창 때부터 지금과 같이 극락전을 주불전으로 하는 아미타도량이었다.

2. 현재의 천은사 극락보전은 1774년에 혜암선사(惠庵禪師)가 건립하였다. 극락보전을 건립하고 2년 후인 1776년에 아미타불회도(보물 제924호)와 삼장보살도(보물 제1888호)를 제작하여 봉안하였다.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불전으로서 단아한 품격을 갖추고 있다. 공포의 구조와 세부적 수법은 법식화와 장식화되는 그 시대의 일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불전과 비교하여 볼 때 과하지 않고 단정함을 유지하며 불전을 장엄하고 있다. 내부 단청 또한 기법도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해남 미황사 대웅전 단청과 유사한 느낌을 주며 안료분석 결과 19세기 이전 단청으로 확인되었다.

3. 천은사 극락보전은 1774년 중건 이후 현재까지 큰 변형이나 훼손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건축의 구조와 양식, 세부수법 등에서 18세기 건축 양식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7.07.11	대상문화재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보물 승격 조사의견서

문화재전문위원 ○○○

-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노고단로 209 (광의면 70번지)
- 문화재종별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

1. 천은사 성격

-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의 말사
- 극락보전을 주불전으로 삼고 있는 아미타도량으로 볼 수 있음

2. 천은사 연혁

- ① 흥덕왕 3년(828) 덕운조사 창건 : 사적기 기록
- ② 헌강왕 원년(875) 연기 혹은 도선 창건 : 그 외 기록
- 명칭변경 : 원래 감로사였으나 조선후기 1774년 해암선사 중창이후 천은사로 변경
- 고려 충렬왕대 '남방제일선원'으로 사격이 높았다고 함
고려시대 자료로 나옹화상의 원불로 전하는 금동불감이 전하고 있음
- 임진왜란으로 전소, 광해군 2년(1610) 혜정선사 재건
- 1678년 화재, 조유선사 중건
- 1773년 대화재, 해암선사가 남원부사 이경륜의 도움으로 극락보전 중심으로 중창불사
현재 가람배치는 당시의 모습을 기본으로 함

3. 극락보전의 건축적 특징

1) 기단 및 계단

- 기단은 높이 약 1.5M 정도의 화강석 장대석 쌓기 형식으로 시멘트 모르타르 줄눈
기계로 절단하고 잔다듬 한 것으로 후대에 변형된 것으로 보임
1983년 사진에는 기단갑석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음
- 중앙의 계단 7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법수석이나 소맷돌 장식은 없음)
마름모형의 계단면석 쌓기 등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에 수리한 것으로 보임
1983년 사진에는 계단 상단에 엄지기둥 장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음

- 당간지주의 위치도 1983년에는는 현재보다 더 앞쪽에 위치하였음



1985년 극락보전 전경사진



2017년 극락보전 전경사진

2) 평면

- 규모 및 용척

: 정면 3칸 (11,063mm) × 측면 3칸 (7,708mm)

정면은 매칸 12尺로 동일하고, 측면은 중앙칸 9尺 전후칸 8尺로 차이를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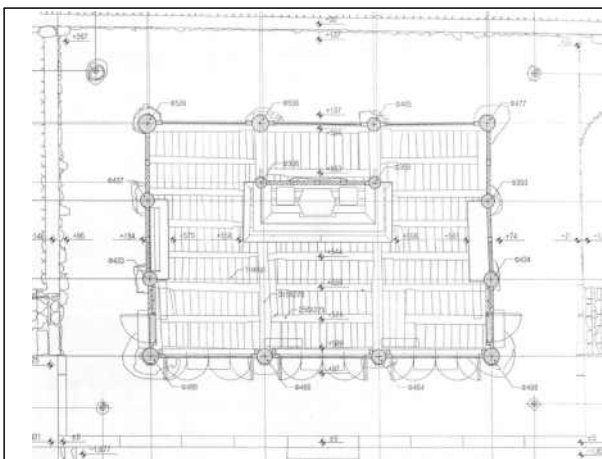
용척 : 1尺 ≒ 307~308mm 정도로 조선시대 영조척과 거의 동일

-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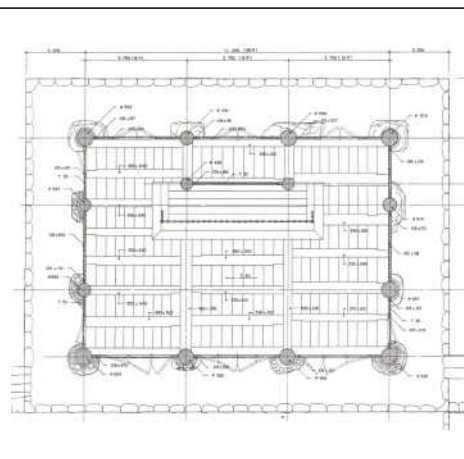
: 내부 후면 중도리 위치에 고주 2분을 세워 불탱을 위한 후불벽을 세우고 특이하게 후불벽 좌우에도 또다시 보조기둥을 세워 후불벽을 확장함

- 바닥 : 우물마루

- 보물 제1310로 지정된 나주 불회사 대웅전 및 보물 제947호인 해남 미황사 대웅전과 그 규모와 형식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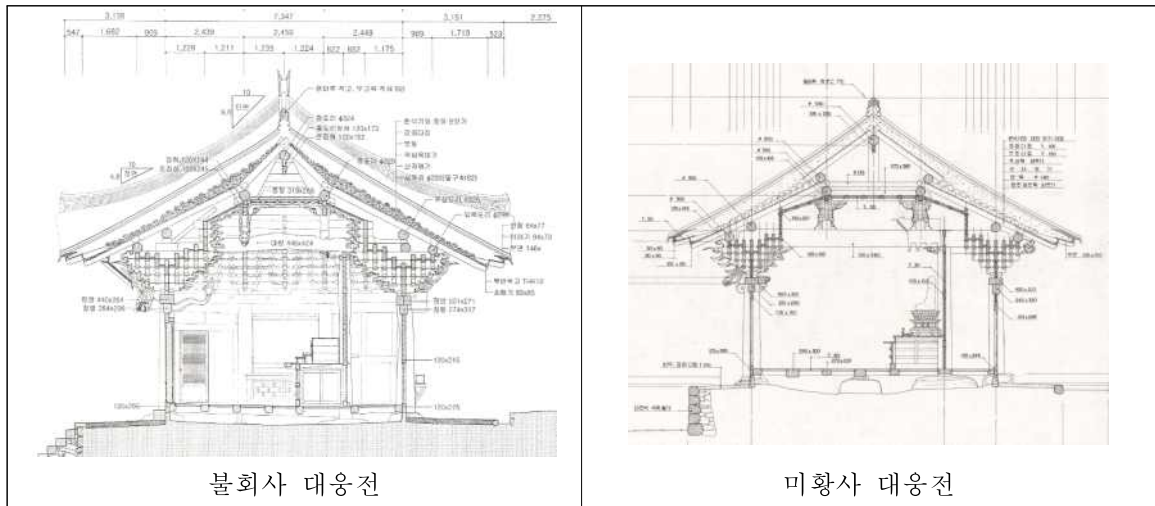
불회사 대웅전



미황사 대웅전

3) 구조 및 가구구성

- 1고주 5량가의 형식으로 대체로 4분변작으로 중도리의 위치를 결정하고 중도리와 중도리 동연의 물매는 1:1로, 중도리와 주심도리 장연의 물매는 1:2로 함



- 고주는 양측벽 기둥열에 뒤로 후퇴시킨 이주법을 사용함
고주가 대들보를 받치되 통보가 아니라 후면으로 퇴보를 연결함
- 양 측면 내출목 상부로부터 대들보 위로 각각 2개씩이 층량을 걸고 층량의 상부에 동자주를 세워 외기도리를 지지하고 있음
전면 층량머리는 용머리로 장식하되 후면 층량머리는 불단 장엄으로 막힘
- 정면 어칸 좌우 기둥 상부에 안초공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초공에 용머리를 장식함
이러한 안초공의 용머리 장식은 조선후기 불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식
- 후불벽의 고주 좌우에 보조적인 기둥을 세워 불벽을 크게 만들어 불탱의 확장 가능

4) 양식 및 공포

- 외3출목 내4출목의 다포양식으로 정면과 배면에는 매 칸마다 간포가 2구씩, 측면에는 매 칸마다 간포 1구씩을 배열함
- 공포는 4단으로 구성하고 4제고의 상부에 대들보를 올림
주심과 출목에 각각 크기가 다른 소첨과 대첨 사용 : 4종류
외부 살미는 3제공까지 연봉양서형, 4제공 수서형, 5제공 운공형

배면 어칸의 내부 1~3단까지의 살미는 모두 교두형으로 처리함



5) 의장 및 단청

- 전체적으로 조선후기의 화려한 장식이 건물에 반영됨
- 불단 상부의 장엄은 연기문과 화염으로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단청으로 마감
- 단청에 사용된 안료는 천연 무기안료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전 건물
(단청에 관한 자료는 보고서 참조 바람)

6) 창호 및 입면

- 정면창의 경우 매 칸마다 3분합 창호를 배치하되 어칸에는 간략한 꽃빛살을, 좌우 협칸에는 격자살을 사용함
- 문얼굴의 구성에 있어 좌우 여백과 창방 아래 여백 등이 어색함
(원래는 4분합 형식으로 세장한 창호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4. 조사자 의견



1983년 천은사 전경



2008년 천은사 배치

천은사 극락보전은 1773년 대화재 이후 해암선사의 중창시 건축된 아미타도량의 중심건물로 큰 변화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고, 다포 팔작지붕으로 조선후기 전형적인 불전형식을 잘 따르고 있다. 구조형식에 있어서나 양식에 있어서도 본 건물이 위치한 전라도 지역의 주요 불전건물(미황사 대응

전 및 불회사 대응전 등)과 유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보물로 지정된 타 건물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특히, 단청의 경우 분석결과에 따르면 천연안료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19세기 이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수리 및 중수이력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비록 단청분석을 통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건축부재 혹은 구조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부차적인 것이지만 현재의 창호입면구성이 건물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과 기단과 계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최대한 원래의 모습으로 고증하여 보완할 필요할 있다.

18.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17~'19년까지 3개년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7~'19년까지 3개년간 국고보조사업으로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내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임.
 - '17년 제1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2017.12.21)에서 조건부가결
 - 승인조건 : 원형의 관람로 안의 수목은 제거, 미 발굴 구간에 대한 발굴 후 위원회 보고, 휴게 의자 등을 적절히 배치토록 함.
- '19년 국고보조사업과 '17년 12월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승인 이후 변경되는 사항을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담양 객사리 석당간 /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45 / 남산리 342
- 지정일 : 1969. 06. 16.

(2) 사업내용

- 사업범위 :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내부 환경 정비

○ 사업지침 및 예산

구분	사업지침	예산
2017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00백만원
2018	2017년도 사업으로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구역을 정비한다.	1,100백만원
2019	2018년도에 이어 보호구역을 정비한다.	2,000백만원

○ 주요내용

- 지반 레벨 정비, 발굴된 유적 정비, 편의시설 등 공원 조성
- 위험요소 제거 : 문화재에 인접한 가로수 이식
- 시설물 정비 : 안내센터 및 화장실 건립, 우물지 복원, 주차장 조성, 비석군 이전 등
- ※ 2020년 담양군에서 우회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 후 기존도로 폐쇄 및 발굴, 보호구역 정비

라. 참고사항

○ 1차 자문의견('17.08.31 / 문화재위원 ○○○·○○○, ○○대학교 ○○○)

- 두 석조 문화재 사이를 근접 관통하는 도로(차량통행)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본래 목적을 크게 상실(경관, 진동, 매연, 접근 등)하고 있어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보호구역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석당간, 오층석탑은 원형보존이 가능하도록 원지반을 기준으로 부지를 조정하고, 두 문화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좋겠음.
- 역사공원의 성격에 맞게 기 발굴된 조사 결과(건물지, 우물 등의 발굴 유구)와 함께 철로 부지와 같은 근대 유적까지 포괄적인 정비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함.
- 문화재 인근 전신주는 지중화 또는 이설하고 수목은 문화재와의 거리 양각 등 전반적 경관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
- 화장실, 주차장 등 공원화에 따른 필요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적의 설명 홍보에 필요한 안내센터를 최소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음.
- 향토수종과 관방제림에 조성된 수종(푸조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을 참고하여 식재계획에 반영하고 유적과 조화로운 조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차 자문의견('17.11.09 / 문화재위원 ○○○·○○○, ○○대학교 ○○○)

- 두 문화재를 관통하는 도로 우회와 함께 시각을 차단하는 수목(메타세콰이어)을 최대한 이식, 문화재가 중심 개념이 되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음.
- 진입 동선(차량, 보행, 자전거)을 분석하여 공원 초입에 진입공간을 확보하여 공간의 완충과 정면성을 부여하고 편의시설을 함께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단지내 도로에서 공원쪽으로 조성된 주차장은 축소하고 외곽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주차장과 보호구역 외곽 부지는 녹음과 완충 개념의 식재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 발굴 유구에 대한 정비는 지양하고 기타 시설 계획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문화재로부터 일정 공간은 흙마당을 조성하고 관람동선과 안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3차 자문의견('18.10.15 / 문화재위원 ○○○·○○○)

- 진입 광장에 안내소와 함께 배치된 화장실은 주차장 부근으로 별도 설치하는 것이 공간 성격상 좋을 것으로 판단.
- 객사리 석당간 및 오층석탑 보호책은 철재보다는 석재를 낮게 가공하여 경계를 만들고 내부는 작은 자갈을 깔아 외부와 구분하는 것이 좋겠음.
- 산책로에서 문화재에 접근 할 수 있는 관람로를 설치하고, 우물지 주변 관람로와 같이 박석 포장하는 것이 좋겠음.
- 유구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건물지는 기단 없이 적심 위치에 초석만 설치하고 별도 안내판에 설명을 부가하는 것이 좋겠음.

○ 4차 자문의견('18.12.27 / 문화재위원 ○○○·○○○)

- 본 사업은 두문화재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쇄하고 보호구역 전체를 하나로 묶는 보호구역 정비로 우회도로 신설과 발굴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통과 도로는 우회도로가 완료된 마지막에 조사 할 수 있는 관계로 안전과 같이 시행함이 합리적일 것임.

- 통과도로 발굴 내용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물과 같은 고정 시설은 도로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설치하고 인근은 잔디 식재정도로 계획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 결과를 잘 표현·유추할 수 있도록 연못·우물을 정비 계획을 보완토록 함.
 - 우물 정비와 벤치는 구분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19. 중요 건축문화재 단청의 과학적 조사 및 분석 검토

가. 제안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유산 조사연구사업(R&D)으로 '17년부터 자체 추진 중인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평가 연구」 사업관련, 전통단청의 과학적 조사·분석을 위한 문화재 현장조사 및 분석용 시편확보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추진 중인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전통 단청 안료의 과학적 조사·분석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국가지정 건축문화재 8건(서울·경기도 지역 소재)에 대한 단청 현장조사 및 안료분석을 위한 시편확보를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문화재연구소(복원기술연구실)
- (2) 신청내용
 - 조사개요
 - 대상문화재 : 창덕궁 인정전(국보 제225호) 등 총 8건(붙임 1 참조)
 - 조사기간 : 2019. 4월 ~ 7월(4개월)
 - 추진방법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체 추진(복원기술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 추진내용 : 단청안료 현장조사·분석 및 박락 시편에 대한 정밀분석
 - ※ 기 추진 실적('17~'18) : 전라도지역 18건 조사(1차)/ 경상도지역 14건 조사(2차)

○ 조사내용

- 대상문화재 단청안료 현장조사 및 비파괴분석(색도, 성분분석 등)
- 단청 주요 색상별 시편 확보 및 정밀분석(안료 성분, 입자형태 및 크기 등)
- ※ 시편확보는 사전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선정 된 지점에서 자연
박리·박락 부분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확보함(5mm 이내 범위)

○ 향후 계획('20년)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단청 안료 분석자료 구축('20년/ 충청지역 등)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전통 단청 종합 분석 DB 구축('20년)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화학적·단편적 조사에 치중하지 말고 좀 더 종합적·심층적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중요 건축문화재 단청 조사 대상목록(3차년도) 1부. 끝.

【붙임】 중요 건축문화재 단청 조사 대상목록(3차년도)

연번	종목	지정번호	문화재명	분야	소재지	비고
1	국보	제225호	창덕궁 인정전	궁궐건축	서울특별시	
2	보물	제817호	창덕궁 선원전	궁궐건축	서울특별시	
3	국보	제226호	창경궁 명정전	궁궐건축	서울특별시	
4	보물	제818호	창경궁 통명전	궁궐건축	서울특별시	
5	보물	제809호	경복궁 자경전	궁궐건축	서울특별시	
6	보물	제1760호	경복궁 수정전	궁궐건축	서울특별시	
7	보물	제819호	덕수궁 중화전	궁궐건축	서울특별시	
8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사찰건축	경기도	
국가지정 건축문화재 총 8건(국보 2건 , 보물 6건)						

20.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울주군수
- (2) 대상문화재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1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 기존 보호구역 :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12-1번지 일원 463㎡
 - 변경 보호구역 :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12-1번지 일원 36,984.8㎡

소재지	기존 보호구역			추가지정 보호구역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1	12,722.5	463	14	57,894.6	36,521.8	15	70,617.1	36,984.8

(4) 신청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및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 해소

라. 지방자치단체(울주군) 의견

-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은 울산지역 내 보물로 지정된 유일한 불상이며, 간월사지는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유적임.
- 1984년 간월사터 발굴조사 후 간월사지는 울산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으나, 현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의 보호구역은 보호각 규모로 설정되어 있음. 특히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원 위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당지에서 조망되는 방향과 배후지역이 문화재 경관의 핵심적 공간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나,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으로 등역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상 숙박시설지로 설정되어 있어 토지 소유주와의 첨예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또한, 보호구역 확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문화재 심의 결과 건축 제한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 보호구역 조정으로 개인 재산권을 보상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참고사항(현지조사의견<2018.12.21.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간월사지는 양 탑과 금당을 중심으로 배후 산과 좌우 능선을 형성하고 있는 현황임.
 - 사지 주변의 배후산과 능선을 사지와 일체성 차원에서 보호구역 확대를 통하여 보호하거나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경관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연 번	소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m ²)	보호 구역(m ²)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울주군 상북면 등억 알프스 리	512-1	중	12,722.5	12,719.3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2		513-1	대	1,720	1,720	○○○	울산 남구	
3		513-2	대	1,670.1	1,670.1	○○○	울산 중구	
4		513-3	대	1,684	1,684	○○○	부산 금정구	
5		513-4	대	1,652.8	1,652.8	○○○	울산 남구	
6		513-5	대	1,669.9	1,669.9	○○○	울산 울주군	
7		513-6	대	2,180.2	2,180.2	○○○ 외 3인	대구 달서구 등	
8		516-3	대	1,593.5	1,593.5	○○○	울산 남구	
9		516-4	대	1,512.4	1,512.4	○○○	울산 울주군	
10		516-5	대	1,512.4	1,512.4	○○○	울산 남구	
11		516-6	대	1,549.8	1,549.8	○○○	울산 남구	
12		516-7	대	1,603.6	1,603.6	○○○ 외 1인	울산 남구 등	
13		740-4	도	7,287.8	1,566.5	울주군	울산 울주군	
14		740-5	도	11,937.1	1,058.4	울주군	울산 울주군	
15		740-6	도	20,321	3,291.9	울주군	울산 울주군	
계				70,617.1	36,984.8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03-021

2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등 허가신청 23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3건	원안가결 16건 조건부허가 2건 부결 5건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경북 예천 (예천군수)	<input type="checkbox"/> 소공원 조성공사 ○ 위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40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2m 이격) ○ 사업내용 - 구조물공 : 벤치 4개, 잔디블록 A=20㎡ - 조경공 : 소나무 10주, 영산홍 104주, 잔디붙임 A=135㎡ * 2018년 10월 3차 자체회의 결과 - 원안가결	원안가결	'19.02.27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경북 칠곡 (○○○ 외 1인)	<input type="checkbox"/>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옹벽 설치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302번지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290m 이격) ○ 사업내용 : 옹벽설치 - L형옹벽 · H=2.0~4.5m, L=26m · H=4.5m, L=18m	원안가결	'19.02.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여수 진남관	전남 여수 (여수시장)	<input type="checkbox"/> 군자동 소로3-29호 도시계획 도로개설 ○ 위치 : 여수시 군자동 283번지 일원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82m 이격)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60m, B=6m 1) 토공 - 흙 깎기 : 966m ³ , 사 토 : 987m ³ 2) 우수공 - 우수관(D450) : 108m , 우수맨홀 : 5EA, 우수받이 : 22EA 3) 오수공 - 오수관(D300) : 55m, 오수맨홀 : 3EA 4) 포장공 - 아스콘포장 : 740m ² 5) 부대공 - L형측구 : 61m, 보차도경계석 : 144m 등	원안가결	'19.02.27
고성 건봉사 능파교	강원 고성 (건봉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대웅전 지역 발(시)굴조사 ○ 위치 :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723 * 지정구역(천연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대웅전지역 발(시)굴조사 - 면적 : 2,066m ² * 대웅전·보안원·명부전 등 주변	원안가결	'19.02.27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강원 정선 (정선군수)	<input type="checkbox"/> 하수관로 매설 ○ 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6-16 일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70m 이격) ○ 사업내용 : 하수관로 매설 - 직경 : D200mm - 길이 : 330m(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해당하는 구간) - 터파기 깊이 : 1.3~1.4m	원안가결	'19.02.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경남 함양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옆 부속창고 신축공사 ○ 위치 :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83-6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43m 이격) ○ 사업내용 : 부속창고 신축공사 - 건축면적 : 11.25㎡ - 규모 : 지상1층(가로4.5×세로2.5m) - 높이 : 1.9m - 구조 : 조립식판넬	원안가결	'19.02.27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충남 부여 (대조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석축 설치 ○ 위치 :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127-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24m 이격) ○ 사업내용 - 규모 : L=31.7m, H=1.15m L=72.5m, H=1.3m	원안가결	'19.03.13
안동 봉정사 대웅전	경북 안동 (안동시장)	<input type="checkbox"/> 산림경관 정비 및 산불 방화선 구축 ○ 위치 :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일원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고사목, 경관 저해목 제거 : 99본 · 소나무 39본, 14.4㎡ · 활엽수 60본, 22.29㎡ - 훈증더미, 그물망 제거 : 83개소, 63.8㎡ - 덩굴류 제거 : 4ha - 잡관목 제거(초화류 제외) : 15.5ha	원안가결	'19.03.1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경북 울진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464-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20m 이격) ○ 사업내용(2개동) - 건축면적(연면적) : 73㎡(73㎡) · A동 : 25㎡, B동:48㎡ - 구조 : 한식목구조/경량철골구조 - 층수/최고높이 : 1층/5.24m/4.45m	원안가결	'19.03.13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경북 영덕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재허가) ○ 위치 :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584-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7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58㎡ - 건축면적(연면적) : 70.4㎡(70.4㎡)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3.8m * 2015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원안가결 - 대지면적 : 658㎡ - 건축면적(연면적) : 72㎡(72㎡)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5.2m	원안가결	'19.03.13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전남 구례 (남원윤씨문 효공파중회)	<input type="checkbox"/> 주변 임야 주벌(개벌) ○ 위치 :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산91-16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46m 이격) ○ 사업내용 : 주벌(개벌) 31,900㎡ - 밤나무 등 기타 잡목 벌채 후 산수유 나무, 편백나무 등 사철나무 식재(예정)	원안가결	'19.03.1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천안 천홍사지 오층석탑	충남 천안 (천안시장)	<input type="checkbox"/> 산책로 조성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홍리 일원 * 제1,5구역(보호구역에서 178m 이격) ○ 사업내용 - 1구역 · 제방난간(1200*1500) 148경간 · 종합안내판(2400*2700) 2개소 · 데크쉼터(5000*12000) 1개소 · 평의자(1600*460) 6개 - 2구역 · 목교(32770*2000) 1개소 · 데크로드(1800) 1.442km · 종합안내판(2400*2700) 1개소 · 화장실(7600*3200*300) 1개소 · 데크쉼터(5000*12000) 1개소 · 전망데크(56㎡) 3개소 · 평의자(1600*460) 12개 · 그네벤치(3000*1500*2215) 1개소 · 데크계단A(1800*14585) 1개소 · 포토존B(1810*450*1800) 1개소 · 포토존C(4900*500*2800) 1개소	원안가결	'19.03.13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상주 (○○○)	<input type="checkbox"/>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488-1 * 제5구역(보호구역에서 456m 이격)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3,527㎡ - 모듈설치면적 : 1,126.7㎡ - 모듈크기 : 1.96*0.99, 576개	원안가결	'19.03.1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상주 (○○○)	<input type="checkbox"/>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488-2 * 제5구역(보호구역에서 378m 이격)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5,299㎡ - 모듈설치면적 : 1,126.7㎡ - 모듈크기 : 1.96*0.99, 576개	원안가결	'19.03.13
서울 살곶이 다리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장)	<input type="checkbox"/> 살곶이 다리 신교량 보수 ○ 위치 : 성동구 사근동 102 외 * 제1구역(문화재 인접) ○ 사업내용 : 교량 보수 - 표면침식부 및 철근노출 단면 보수, 하 상세골부 무근 콘크리트 타설 - 가물막이 설치, 차량통행용 성토 등	원안가결	'19.03.13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1-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86.07㎡(86.07㎡) - 층수/ 높이 : 지상 1층/ 5.1m - 구조 : 경량철골조 - 마감 : 사이딩패널, 금속기와 - 기존주택 철거 후 신축	원안가결	'19.03.1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구미 (보천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정자 증축(2개동) ○ 위치 :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25-1 * 제1구역(보호구역 내/보호구역에서 25m 이격) ○ 사업내용 - 정자1 증축(11.52㎡, 3.48평) · 규모 : 정면 2칸, 측면 1칸 · 구조 : 한식목구조, 3량가 · 지붕 : 홑처마, 맞배지붕, 한식기와 - 정자2 증축(7.47㎡, 2.26평) · 규모 : 정면 1칸, 측면 1칸 · 구조 : 한식목구조, 3량가 · 지붕 : 홑처마, 맞배지붕, 한식기와	조건부가결 (정자1의 위치를 조정)	'19.02.27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전남 구례 (연곡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의병장 고평순 순절비 보수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774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순절비 보수 - 주변 경계석 설치, 지대석 및 배례석 신재 교체 - 거친돌 석축 및 박석 설치 - 주변 진입로(소요대사탑) 정비 - 배수로 설치 및 수목 이식	조건부가결 (관계전문 가 자문을 받아 시행)	'19.03.13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충북 제천 (○○○)	<input type="checkbox"/>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제천시 장락동 71-14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20m 이격)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264㎡ - 건축면적(연면적) : 139.38㎡(337.74㎡)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수/최고높이 : 3층/12.8m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19.02.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 상	경기 이천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83-9 * 제1구역(문화재 인접)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496㎡ - 건축면적(연면적) : 69.18㎡(99.85㎡) - 층수/높이 : 2층 / 7.5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19.03.13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 상	경기 이천 (○○○)	<input type="checkbox"/>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위치 :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83-9 * 제1구역(문화재 인접) ○ 사업내용 : 소매점 신축 - 대지면적 : 1,555㎡ - 건축면적(연면적) : 198㎡(198㎡) - 층수/높이 : 1층 / 6.2m - 구조 : 경량철골조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19.03.13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강원 철원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부지조성(변경허가) ○ 위치 :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1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부지조성 <table border="1" data-bbox="550 1467 1125 1937"> <thead> <tr> <th>구분</th> <th>1차 (6월/부결)</th> <th>2차 (12월/가결)</th> <th>금차</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td> <td>33,515㎡</td> <td>좌동</td> <td>좌동</td> </tr> <tr> <td>사업부지 면적</td> <td>25,000㎡</td> <td>9,653㎡</td> <td>10,420㎡</td> </tr> <tr> <td>단독주택 부지</td> <td>15동</td> <td>6개동</td> <td>10개동</td> </tr> <tr> <td>석축 높이 (식생블록)</td> <td>최대 3m</td> <td>최대 2m</td> <td>최대 8m</td> </tr> <tr> <td>절·성토</td> <td>최대 6.4m</td> <td>최대 4.8m</td> <td>최대 11.74m</td> </tr> </tbody> </table>	구분	1차 (6월/부결)	2차 (12월/가결)	금차	대지면적	33,515㎡	좌동	좌동	사업부지 면적	25,000㎡	9,653㎡	10,420㎡	단독주택 부지	15동	6개동	10개동	석축 높이 (식생블록)	최대 3m	최대 2m	최대 8m	절·성토	최대 6.4m	최대 4.8m	최대 11.74m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19.03.13
구분	1차 (6월/부결)	2차 (12월/가결)	금차																									
대지면적	33,515㎡	좌동	좌동																									
사업부지 면적	25,000㎡	9,653㎡	10,420㎡																									
단독주택 부지	15동	6개동	10개동																									
석축 높이 (식생블록)	최대 3m	최대 2m	최대 8m																									
절·성토	최대 6.4m	최대 4.8m	최대 11.74m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경북 청도 (청도군수)	<input type="checkbox"/> 도로선형 개량공사 ○ 위치 :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160-1번지 외 9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m 이격) ○ 사업내용 - B=6.0m, L=157.8m, T=20cm - 토공 : 흙깎기 278㎡, 흙쌓기 105㎡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19.03.13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